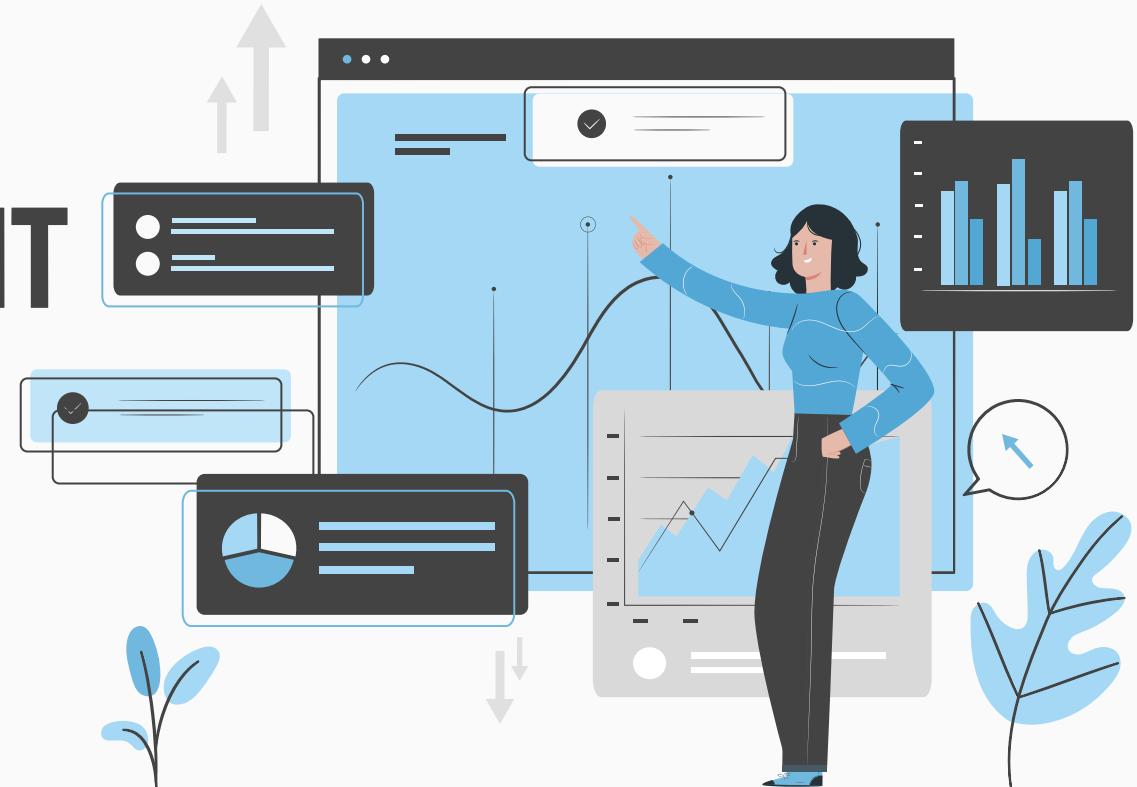


# INVESTMENT FORECAST

TURN-AROUND





01  
**HYUNDAI**

03  
**SK D&D**

02  
**YG ENTERTAINMENT**

04  
**NAVER**

05  
**NEXON**

**HYUNDAI**  

---

**MOTOR GROUP**

이지훈

# NEW AVANTE, SANTAFE

# EARNING SURPRISE ?



COVID-19



## 유동자산 감소: 리콜 사태

##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증가(설비투자)

주요 재무항목



안정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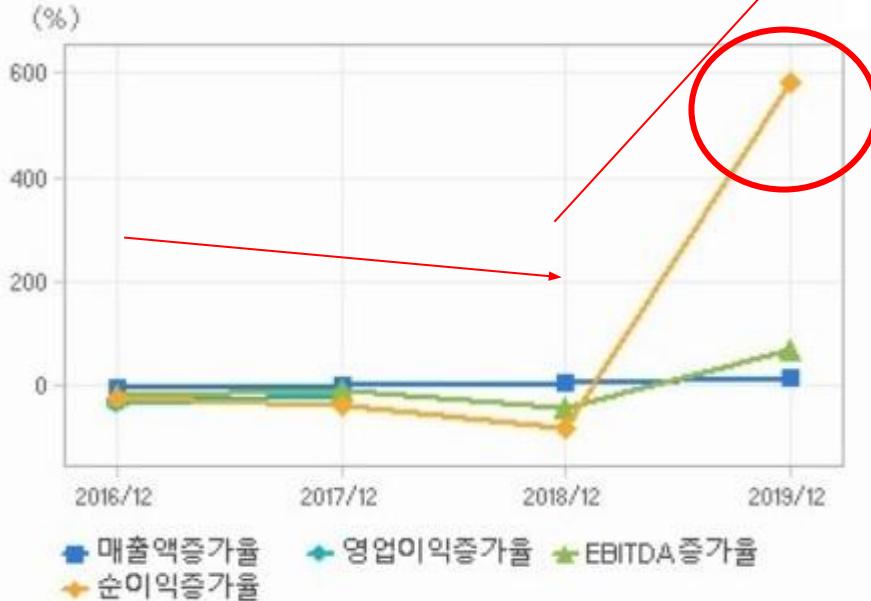


## 순이익 감소: 리콜 사태

Invested Capital



성장성 지표



## REPUTATION

### MARKET CONSENSUS

매출액 : 20조 9479억

영업이익 : 3192억

### PERFORMANCE

매출액 : 21조 8590억

영업이익 : 5903억

# PRODUCT



KONA



G80



GV80



XCIENT



GV70

- 경쟁사 대비 적은 제품포트폴리오
- 노사 갈등
- 승계와 지배구조
- 신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 부족
- 낮은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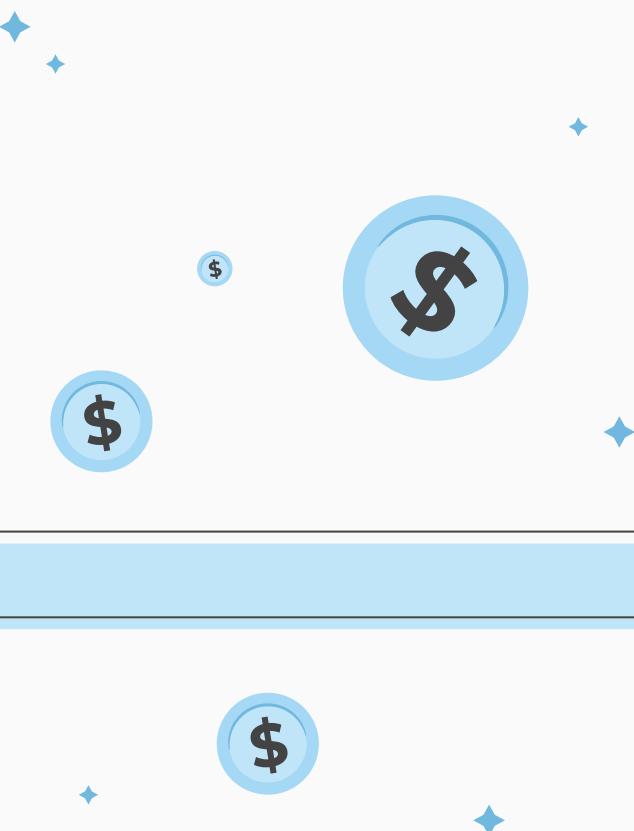
**WEAKNESS**



- 저렴한 가격
- AS보장
- 유럽의 기업 환경(내연기관에 대한 법, 제도적 규제)

Ex. 파리 : 노후버스 전기버스로 전환,  
브뤼셀, 암스테르담 : 2030년 휘발유차 운행 제한

## STRENGTH





JASON T

@JasonTuatara

@elonmusk Steering wheel fell off today! Concerned that the rest of the car will fall to bits too! Can this be looked into as to why it's happened to a car just over 1 month old! #TeslaServiceIssues



입력 2020.07.14 09:28 | 수정 2020.07.24 19:29

-최악은 테슬라, 최고는 닷지-기아차

미국 JD파워가 올해 신차초기품질연구(Initial Quality Study, IQS)를 조사한 결과 테슬라의 품질이 가장 좋지 않다고 밝혔다.

13일(현지 시간) JD파워에 따르면 IQS 조사는 소비자가 신차를 산 후 90일동안 겪은 문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연구는 에어컨, 운전지원, 사용자경험, 외장, 실내, 기능 및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동력계, 좌석 등 9개 분야 233가지 문제로 구분한다. 100대 당 경험한 문제의 수에 따라 점수(Problems Per 100 vehicle, PP100)를 매기며, 점수가 낮을수록 고품질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8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균은 PP166이었으며 음성인식,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등의 연결문제가 4분의 1

화면이 깨지니 걱정돼서 차량 구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NEW PLAN



EV 45



EV PROPHECY



AUTO PILOT

# MARKET SHARE

## 연간 누적 글로벌 EV+PHEV 브랜드 TOP 10

단위: 천대, 판매량이 집계되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 있으며, 2019년 자료는 집계되지 않은 국가 자료를 제외함

| 순위 | 브랜드명 | 2019년<br>1~5월 | 2020년<br>1~5월 | 성장률(%) | 2019년<br>점유율(%) | 2020년<br>점유율(%) |
|----|------|---------------|---------------|--------|-----------------|-----------------|
| 1  | 테슬라  | 111.0         | 125.8         | 13.3   | 12.5            | 17.7            |
| 2  | BMW  | 50.9          | 50.0          | -1.9   | 5.7             | 7.0             |
| 3  | BYD  | 115.1         | 36.6          | -68.2  | 12.9            | 5.2             |
| 4  | 폭스바겐 | 14.8          | 30.7          | 107.4  | 1.7             | 4.3             |
| 5  | 르노   | 23.9          | 29.3          | 22.3   | 2.7             | 4.1             |
| 6  | 현대   | 27.0          | 26.5          | -2.0   | 3.0             | 3.7             |
| 7  | 기아   | 21.3          | 24.6          | 15.5   | 2.4             | 3.5             |
| 8  | 아우디  | 7.5           | 24.4          | 223.6  | 0.8             | 3.4             |
| 9  | 볼보   | 17.6          | 24.3          | 37.8   | 2.0             | 3.4             |
| 10 | 닛산   | 34.0          | 24.2          | -28.8  | 3.8             | 3.4             |
| 기타 |      | 468.1         | 313.9         | -32.9  | 52.5            | 44.2            |
| 합계 |      | 891.4         | 710.1         | -20.3  | 100.0           | 100.0           |

자료=SNE리서치

# SALES

[표] 현대·기아차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실적

| 구분              | HEV       | PHEV    | EV      | FCEV  | 합계        |
|-----------------|-----------|---------|---------|-------|-----------|
| 2009년           | 6,231     |         |         |       | 6,231     |
| 2010년           | 6,186     |         |         |       | 6,186     |
| 2011년           | 31,349    |         | 236     |       | 31,585    |
| 2012년           | 64,077    |         | 643     |       | 64,720    |
| 2013년           | 71,076    |         | 277     | 27    | 71,380    |
| 2014년           | 77,931    |         | 2,437   | 128   | 80,496    |
| 2015년           | 58,013    | 1,313   | 11,063  | 269   | 70,658    |
| 2016년           | 111,889   | 3,028   | 13,817  | 242   | 128,976   |
| 2017년           | 208,899   | 19,362  | 27,764  | 233   | 256,258   |
| 2018년           | 196,869   | 34,508  | 61,967  | 966   | 294,310   |
| 2019년           | 219,485   | 43,160  | 101,238 | 4,987 | 368,870   |
| 2020년<br>(1~5월) | 86,015    | 20,146  | 51,177  | 2,744 | 160,082   |
| 누적              | 1,138,020 | 121,517 | 270,619 | 9,596 | 1,539,7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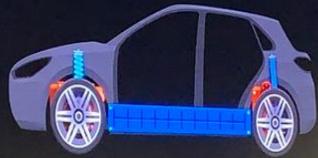
# ALIANCE

상위 업체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배터리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일본 파나소닉을 잡았고, 닛산은 일본 전기업체 NEC와 배터리 자회사 AESC를 설립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내재화했다. 지금은 AESC를 중국 인비전그룹에 매각한 상태다. 현대차도 배터리 강자인 LG화학과 협력해 전기차를 개발했다. 반면 유럽에는 배터리 회사가 없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상위권을 다투던 독일 자동차업계로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카니발라이제이션(시장 잠식) 우려 등으로 배터리업계와의 협업도 늦었다.

# NEW PARADIGM : ELECTRIC CAR

관건은 누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의 '패권'을 가져가느냐다. 배터리 구입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재 폭스바겐 GM 도요타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포드에 자사 플랫폼인 MEB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 플랫폼으로 전기차 시장을 통일하려는 시도다. 고 센터장은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포함해 각 완성차 업체의 플랫폼 성공 여부에 따라 완성차업계 순위가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CAR AS THE PLATFORM



E-GMP (Electric - Global Modular Platform)



E-GMP



PLATFORM ECONOMY

## 현대자동차 2025 목표

# 61.1

- 총 61조1000억원 투자
-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41조1000억
- 미래사업기반 확보 20조  
(2025 전략 체계 전환)

- 5**
- 5%대 시장점유율
  - 시장수요 유연하게 대응, 수익확보에 집중
  - 2018년 대비 약 1%포인트 증가  
수준 시장점유율 목표

**8** 영업 이익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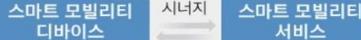
### 주요 투자 계획(원)

|         |         |
|---------|---------|
| 전동화     | 9조7000억 |
| 자율주행    | 1조6000억 |
| 커넥티비티   | 9000억   |
| 로보틱스    | 1조5000억 |
| UAM     | 1조8000억 |
| 모빌리티서비스 | 1조8000억 |
| 플랫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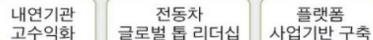
## 현대자동차 2025 전략

###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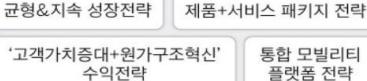
#### 2대 사업구조



#### 3대 전략방향



#### 4대 사업전략



## 현대자동차그룹 2025년

###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 수익전략

3대  
고객  
가치  
증대  
증대  
요소  
도입

- 혁신적 디지털 사용자 경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별화 요소 제공  
2025년까지 고도화된 음성조작·개인비서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AI) 커넥티드 서비스  
2025년까지 주요지역 신차 커넥티비티(연결성) 기본화  
안전 지향 자율주행
- 2025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2·3 및 ADAS 기술 전 차종 확대  
2022년까지 완전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2024년 양산 추진

원가구조  
혁신

- 새 전기차 아키텍처 개발체계 도입, 2024년 출시 차종 최초 적용  
라인업 효율화 통한 차종당 물량·수익성 확대
- 시장 수요 맞춘 글로벌 생산 체계 유연성 확보  
영업망 최적화·새로운 판매 방식 도입
-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제휴 추진·구조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정의선 "5년내 세계 1위".."전기차 대박" 선언

정의선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판매, 글로벌 리더 되겠다"

AUTO  
POST

## LONG-TERM ISSUE

- 확인된 성장 : 매해 25 % 성장
- 유럽과 미국의 방향 : 매해 매연기관을 억제, 전기차 사업 양성
- 현재 테슬라 4분기 연속 흑자 상황 : 올해 완전자율주행 완성 목표
- 유럽 자동차 회복세 뚜렷, 전기차 판매량 계속 증가
  - 삼성 - 현대 전기차 동맹
  - 미국 앱티브와 손잡고 자율주행 합작사 설립(법인 완료)
  - 핵심 전고체 배터리 - 삼성 SDI
  - 미국시장(바이든 당선시 전기차, 수소차 시장 확대로 호재 예상)
  - 그린 뉴딜(정부 지원)

## FUTURE PLANS

- 경쟁 기업(테슬라)과 관련된 키워드 : 무인 자율 주행, 사상, 품질 문제
- 기업 환경 법 제도적 제재
- 유관 산업으로 배터리 시장의 변화
- 재무제표로는 리콜과 관련한 당기 순이익
- 추후 설비 확장과 관련하여 비유동자산 변화 추이 확인

다음~~~~~복 물

# YG 엔터주 투자 분석

2020. 8. 12  
김서정

# 목차

1. 분석 개요
2. YG 엔터 내부 상황
3. YG 차트 분석
4. Post-BTS의 가능성

# 1. 분석개요

소녀시대 생각하며 에스엠에 투자한지 3년이 되간다.. 수익 인증ㅋ

88(221.138) | 2011.07.13 17:03:55



소녀시대 팬이 SM주식 투자로  
수익률 약 2700%를 달성한  
일화

취미를 투자로 연결하는 것도 일종의 테마주로 볼 수 있다.

엔터주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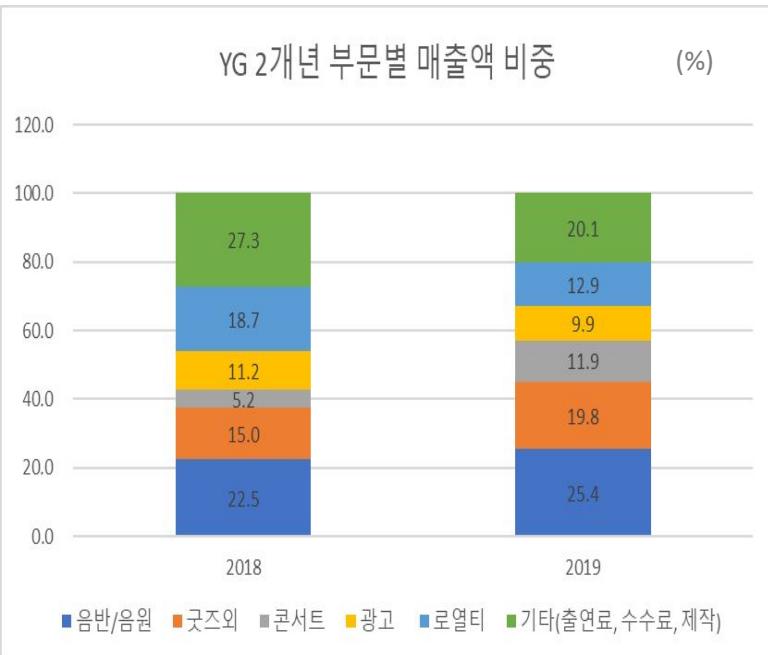
소속 아티스트의 실적 = 회사의 주가 및 이익의 동력

국내 사회·정치·세계적 트렌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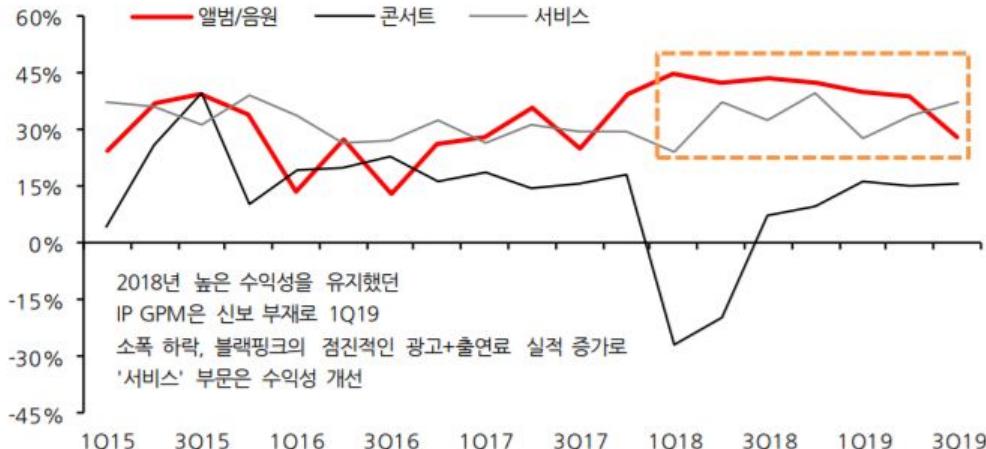
**엔터주를 성장시킬 POST-BTS에 대한 관심도 상승**

## 2. YG 엔터 내부 상황

### YG 사업부문별 수익구조



[그림3] 와이지 사업부문별 GP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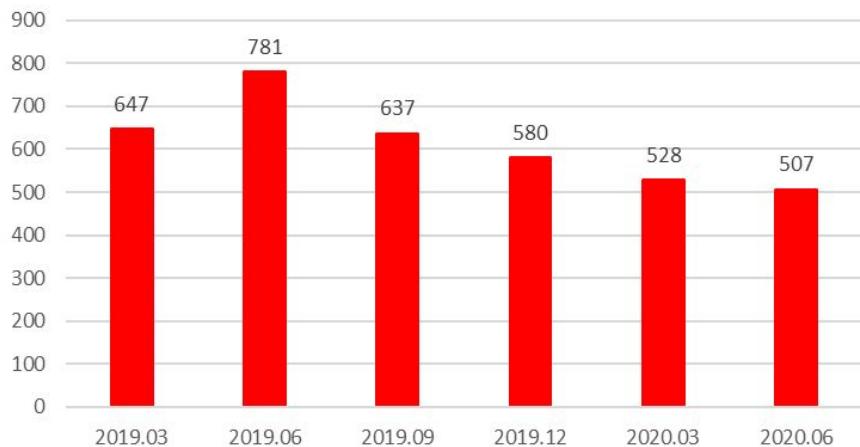


자료: 와이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전까지 YG의 캐시카우였던 빅뱅의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음반/음원 매출이 **가장 높은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 (GPM)**  
을 기록중

## YG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yg 엔터 최근 분기 매출액 (억원)



YG엔터 최근 분기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억원)



- 악동뮤지션 9월 앨범 발매
- 블랙핑크 일본 콘서트 등

WHY  
?

### 3. YG 차트 분석



2019~

2020~

# YG 엔터 차트 특이점

2019.초~現



○ : 하락  
포인트

○ : 상승  
포인트



: 하락

포인트

2019년 1월이후 (버닝썬케이트 사건이후), YG 주가 추이





: 하락

포인트

2019년 1월이후 (버닝썬케이트 사건이후), YG 주가 추이

2019년 1월초 버닝썬 게이트 이후, 꾸준한 하락세

2019년 2월 25일 8638억 원이었던 YG의 시총이 한 달 만에 6438억 원으로 25.47% 급감  
(2200억 원이 단기간에 증발)

2019년 3월 - 52주 신저가(18950원) 기록

2019년 3월 10일 승리의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

2019년 3월 11일 yg주가가 14%하향

2019년 3월 12일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도

이후에도, yg 불매운동 + 지속적인 자회사 적자로 인한 경영난으로 주가 하락

연예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 -> 투자심리 위축



YG뿐만 아니라, 대표 엔터주3사 19년도 1,2분기 모두  
**하락세**

시사저널E.

### 3대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증감율 (단위: 억원)

|     | 2019-01-02 | 2019-07-17 | 증감율     |
|-----|------------|------------|---------|
| SM  | 1조1763억원   | 8516억원     | -27.60% |
| JYP | 1조270억원    | 7347억원     | -28.50% |
| YG  | 8347억원     | 5013억원     | -39.90% |
| 합계  | 3조381억원    | 2조877억원    | -31.30% |



: 하락  
포인트

버닝썬 게이트 이후, YG뿐만 아니라, 대표 엔터주3사 19년도 1,2분기 모두 **하락세**





: 하락  
포인트

## YG 자회사 실적부진 및 계약사 투자금 상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소유한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LVMH)'가 2014년 10월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YG에 50만3588주 투자

5년 뒤인 상환 시점에 YG의 주가가 4만 3,574 원을 넘어서면 투자금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의 이자를 더해 약 670억 원가량을 상환 받는다는 조건

YG는 LVMH로부터 610억원을 투자받아, 화장품·요식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YG 플러스의 코드코스메(화장품), YG푸즈(요식업)

당시 매입 단가는 주당 4만410원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를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



## YG 자회사 실적부진 및 계약사 투자금 상환

YG 플러스의 코드코스메(화장품),

YG 푸즈

YG 푸즈 : 손실액 21억원 (전년 동기대비 55.41%증가)

코드코스메 : 2019년 3분기까지 당기 손실액 26억원

2019년 연결기준 순손실 250억원

별도기준 순손실 규모 133억원

상환시점인 2019년 10월 당시 주가는 25000원대

LVMH에 674억원 상환 (YG 분기 매출액과 비슷한 정도)

(LVMH는 투자액 상환후에도 총 74억원 이상 평가손실)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YG엔터 최근 분기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억원)





: 하락

포인트

중국의 한한령 : 2017년에 발행된 비공식적인 행정명령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한다거나 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림 8. YG 중국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YG, 하나금융투자



: 하락

포인트

한일 수출규제 갈등으로 인한 반일, 반한 감정  
고조

JYP, SM, YG엔터주 모두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된 7월1일 이후  
각각 10%, 15%, 10% 하락

원인 : 버닝썬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치하락세

+

엔터사의 주요 수익원중 하나인 일본활동에 대한 위축우려

투자심리 위축



YG entertainment japan (YG  
일본법인)

2019년 3분기까지, 약 17억원 손실.



: 하락  
포인트

코로나 → 해외 출입국 및 콘서트, 팬사인회 등 오프라인 활동 제한

2020년 3월 19일날, 52주 최저가 (18,950원) 기록





9월 1일~19일까지 평균 거래량 : 136594.75

9월 20일 거래량이 이전 2주평균 보다 14배 폭증하며 주가가 7.3% 급등

Why?

버닝썬 이후, YG의 최대 주주이자 전 대표였던 양현석의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해 '혐의없음' 판결당일날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인 매수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됨



: 상승

포

최고42,750(2020/06/30), -6.46% ↘



## 블랙핑크 선공개곡 how you like that 음원 출시

6월 26일 How you like that 발매일날 33850원 장마감

6월 29일 41000원 장마감 (52주 신고가)

6월 30일 42750원 종전기록

7월 8일 40400원, 2주만에 시총 1100억원 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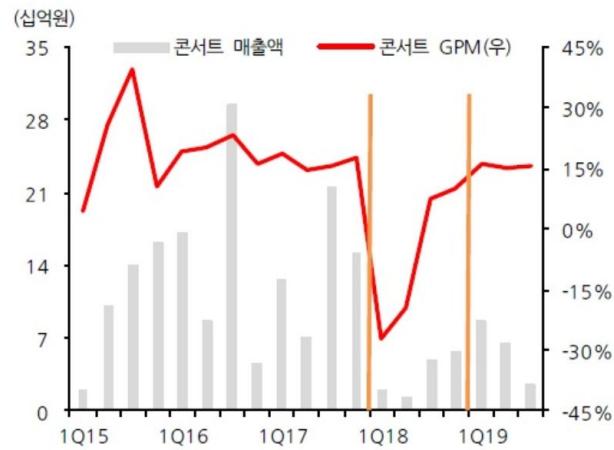
버닝썬 사태 당시, 한달만에 2000억원 이상 하락했던 시총을 2주만에 절반이상 회복시킴

#### 4. POST-BTS 가능성

그렇다면, 블랙핑크가 해외시장까지 선점하는 POST-BTS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 블랙핑크의 현 상태 및 인기 요인은?
- BTS의 성공요인?

[그림4] 와이지 콘서트(일본 제외 국내+타국가)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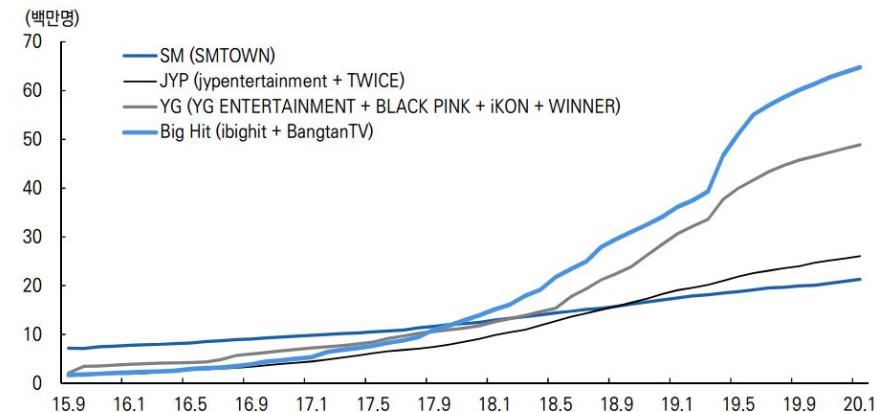
자료: 와이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빅뱅의 공백이 시작된 2018년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블랙핑크의 2019년 3분기이후 콘서트 GPM은 빅뱅 수준까지 올라옴

벌어들이는 매출대비 비용이 낮아, 수익성이 높다

## 블랙핑크의 지표

그림 4. 기획사별 유튜브 구독: 글로벌 구독자 수 누적은 지속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7. 와이지 유튜브 순매출액 전망: P(광고 단가)와 Q( 조회수, 구독자) 동반 상승에 따른 고성장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BLACKPINK

총 구독자 수 ?

43,600,000

유튜브 수익 예측[월수익] ?

₩ 1,745,436,873

CPM: ₩ 1,985.16-₩ 3,452.45

제휴 수익 예측[동영상 1개당] ?

₩ 892,111,484

CPM: ₩ 26,972.25-₩ 48,55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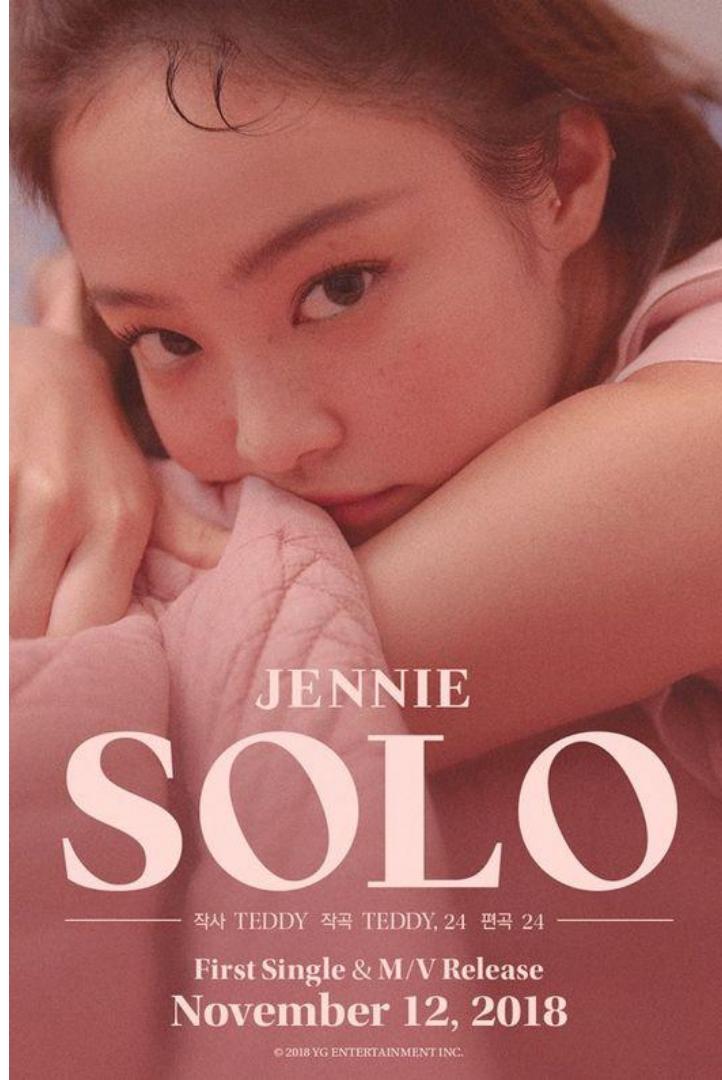
How you like that  
BLACKPINK

블랙핑크 앨범 특징

충성도가 높은 10대, 20대 여성들을 타겟

YG 대표 프로듀서 Teddy의 프로듀싱 – 2NE1 제작

잃어버린 사랑을 한탄하거나,  
상상 속의 완벽한 남자를 갈망하는 가사와는 동떨어짐



[표 3] 글로벌 아티스트 유튜브 MV 조회수 순위 - 2019년 조회수 1~2위는 K-pop 아티스트

(단위: 억뷰)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
| 순위    | 아티스트             | 조회수  | 순위    | 아티스트                | 조회수  | 수위    | 아티스트             | 조회수  |
| 1     | Ed Sheeran       | 78.4 | 1     | Ozuna               | 64.2 | 1     | 방탄소년단            | 41.2 |
| 2     | Luis Fonsi       | 59.6 | 2     | Ed Sheeran          | 45.0 | 2     | 블랙핑크             | 40.0 |
| 3     | Shakira          | 46.6 | 3     | 방탄소년단               | 38.3 | 3     | Daddy Yankee     | 38.6 |
| 4     | Katy Perry       | 46.1 | 4     | Guru Randhawa       | 33.2 | 4     | Marshmello       | 36.7 |
| 5     | J Balvin         | 42.6 | 5     | Luis Fonsi          | 31.1 | 5     | Anuel AA         | 35.8 |
| 6     | Ozuna            | 42.0 | 6     | Maroon 5            | 30.6 | 6     | Ariana Grande    | 33.8 |
| 7     | Maluma           | 41.3 | 7     | Daddy Yankee        | 30.6 | 7     | Ed Sheeran       | 33.3 |
| 8     | Taylor Swift     | 37.2 | 8     | Bad Bunny           | 30.5 | 8     | Billie Eilish    | 32.1 |
| 9     | The Chainsmokers | 34.6 | 9     | Zé Neto e Cristiano | 30.0 | 9     | Bad Bunny        | 29.5 |
| 10    | Bruno Mars       | 32.8 | 10    | XXXTENTACION        | 30.0 | 10    | Marília Mendonça | 29.0 |
| 11    | Nicky Jam        | 32.7 | 11    | Shakira             | 29.2 | 11    | Ozuna            | 28.0 |
| 12    | CNCO             | 30.8 | 12    | Marshmello          | 28.5 | 12    | Maroon 5         | 27.1 |
| 13    | Justin Bieber    | 29.9 | 13    | Nicky Jam           | 28.2 | 13    | Post Malone      | 27.0 |
| 14    | Bad Bunny        | 28.0 | 14    | Eminem              | 27.4 | 14    | Guru Randhawa    | 24.1 |
| 15    | Enrique Iglesias | 27.8 | 15    | J Balvin            | 27.0 | 15    | Gustavo Lima     | 23.0 |
| 16    | Daddy Yankee     | 25.3 | 16    | Ariana Grande       | 27.0 | 16    | Maluma           | 23.0 |
| 17    | 방탄소년단            | 24.6 | 17    | Maluma              | 26.5 | 17    | Imagine Dragons  | 21.6 |
| 18    | Marilia Mendonça | 23.7 | 18    | 블랙핑크                | 26.2 | 18    | Karol G          | 21.4 |
| 19    | Clean Bandit     | 23.2 | 19    | Imagine Dragons     | 25.5 | 19    | Taylor Swift     | 21.0 |
| 20    | Charlie Puth     | 22.5 | 20    | 6ix9ine             | 24.7 | 20    | Shawn Mendes     | 20.3 |
| 60    | 트와이스             | 12.4 | 39    | 트와이스                | 18.1 | 41    | 트와이스             | 16.6 |
| 68    | 빈백               | 11.0 | 99    | EXO                 | 9.5  | 96    | EXO              | 9.5  |
| 74    | 블랙핑크             | 10.5 | 113   | 빅뱅                  | 8.7  | 154   | 빅뱅               | 6.7  |
| 90    | EXO              | 9.3  | 172   | GOT7                | 6.8  |       |                  |      |
| 102   | 싸이               | 8.6  | 198   | 아이콘                 | 6.0  |       |                  |      |
| 177   | 소녀시대             | 5.4  |       |                     |      |       |                  |      |
| 184   | GOT7             | 5.3  |       |                     |      |       |                  |      |

자료: 유튜터증권 리서치센터

## Kpop 아티스트의 유튜브 조회수 순위

블랙핑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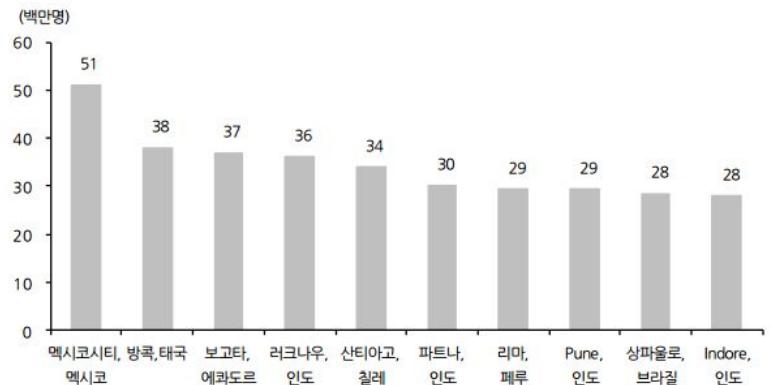
2017년 74위 > 2018년 18위 > 2019년 2위

방탄소년단 :

2017년 17위 > 2018년 3위 > 2019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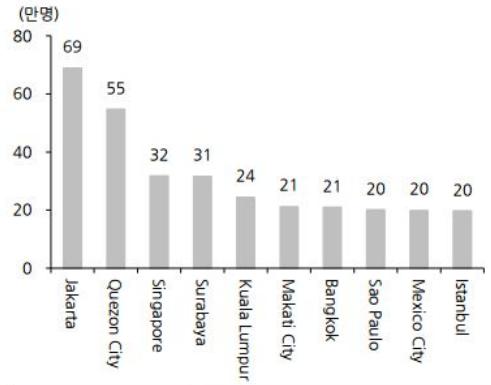
# 블랙핑크의 지표

[그림40] 유튜브의 주간 조회수(도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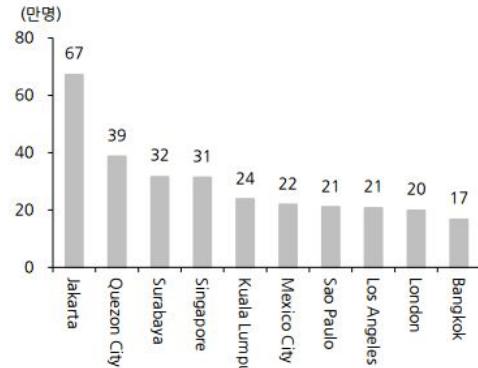
자료: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그림41] 블랙핑크의 도시별 스포티파이 트래픽



자료: Spotify, Soundwave, 한화투자증권

[그림42] BTS의 도시별 스포티파이 트래픽



자료: Spotify, Soundwave, 한화투자증권

출처 : 19년 6월 자료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에서의 음원 플랫폼 이용 트래픽 증가

## 블랙핑크 행보

레이디 가가가 속한 인터스코프 레코드(유니버설 뮤직 산하)와 계약

레이디가가와 콜라보 앨범 발매 (Sour Ca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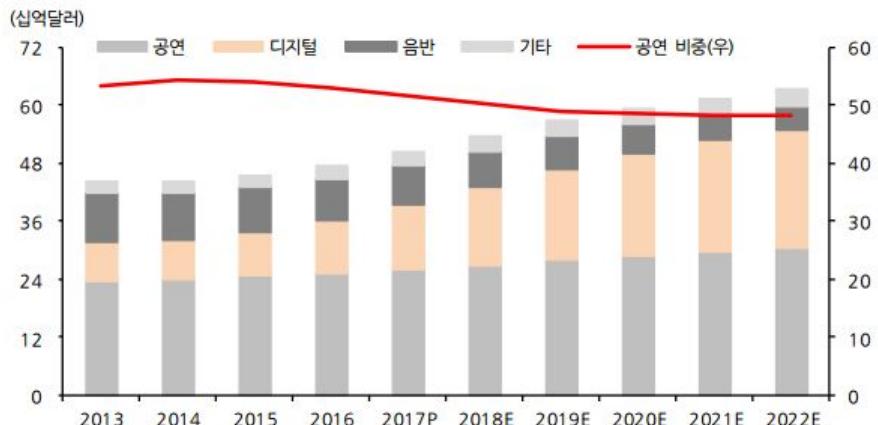
19년도에 북미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참여

19년도 총 8회의 북미 투어 콘서트 진행

## 해외시장 트랜드 및 BTS성공가도 분석

### 공연(수익성) 시장의 확대

[그림4] PwC 음악시장 규모와 공연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PwC, 한화투자증권

전체 음악시장의 절반은 여전히 공연시장  
(미국, 일본, 중국의 음악시장 규모 내  
공연 비중은 각각 47%, 43%, 67% 수준)

### TOP T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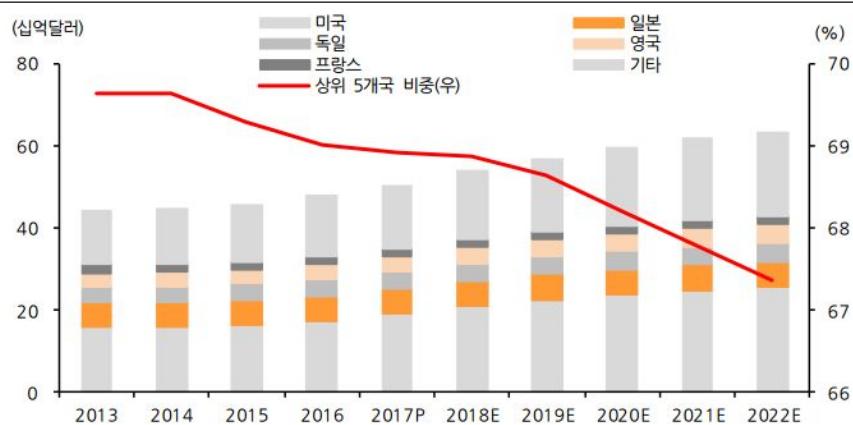
| ARTIST          | TOTAL GROSS  | TOTAL ATTENDEES | NO. OF SHOWS |
|-----------------|--------------|-----------------|--------------|
| 1 BTS           | \$51,666,038 | 384,498         | 8            |
| 2 METALLICA     | \$28,648,630 | 290,361         | 5            |
| 3 P!NK          | \$24,846,060 | 162,283         | 10           |
| 4 SPICEGIRLS    | \$23,638,040 | 224,739         | 4            |
| 5 ARIANA GRANDE | \$19,877,178 | 165,523         | 12           |
| 6 ED SHEERAN    | \$19,159,407 | 247,478         | 5            |
| 7 CHER          | \$17,166,754 | 149,534         | 12           |
| 8 HUGH JACKMAN  | \$16,908,667 | 205,219         | 20           |
| 9 TAKE THAT     | \$13,423,910 | 118,427         | 8            |
| 10 ELTON JOHN   | \$13,403,967 | 116,481         | 10           |

출처 : 빌보드

BTS의 2019년 5월 한달동안 투어 매출 :  
5000만 달러(한화로 약 600억원)

## 해외시장 트랜드 및 BTS성공가도 분석

[그림10] 국가별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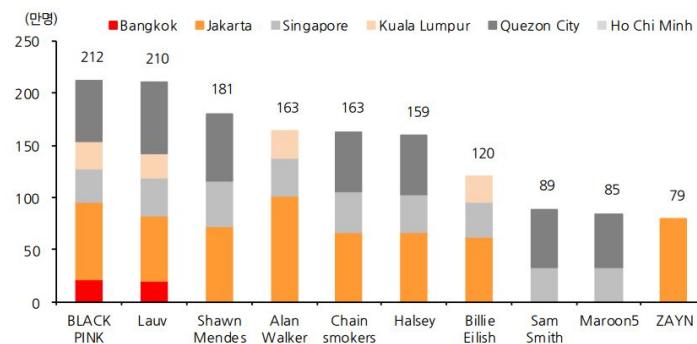


자료: PwC, 한화투자증권

상위 5개국이 시장의 70%를 차지  
(특히, 미국, 일본이 절반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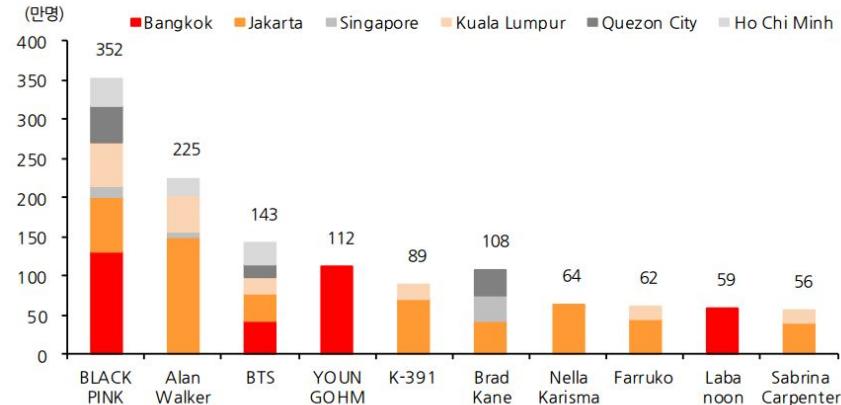
BTS의 매출 공식 = 콘서트 규모와 횟수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 + 규모의 Main Stream으로의 진출

[그림44] Top 10 Artists by Spotify Monthly Listeners - 동남아시아 전체



자료: Spotify,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그림46] Top 10 Artist by Youtube Daily Views - 동남아시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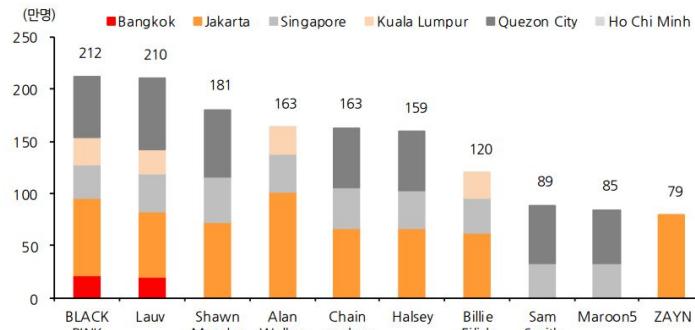


자료: YouTube,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신흥국 트래픽의 상위권은 대부분 K-pop 노래가 장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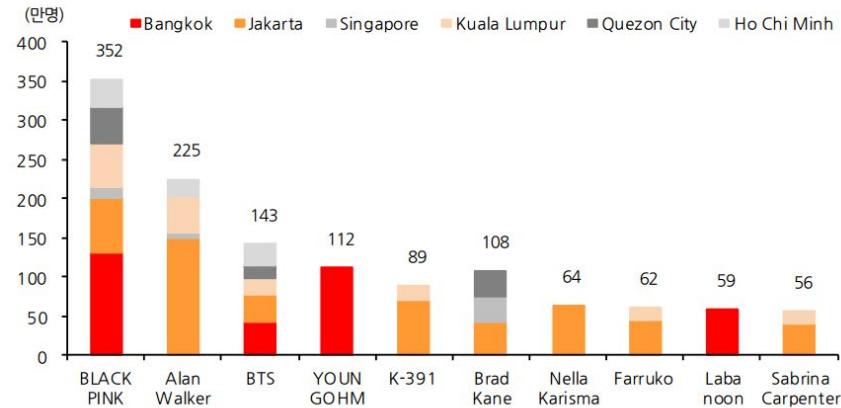
BTS와 블랙핑크 모두 **최다 스트리밍 지역**은 한국이 아니라  
1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위 필리핀 등으로 신흥국 위주

[그림44] Top 10 Artists by Spotify Monthly Listeners - 동남아시아 전체



자료: Spotify,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그림46] Top 10 Artist by Youtube Daily Views - 동남아시아 전체



자료: YouTube, Chartmetric, 한화투자증권

신흥국에서의 높은  
Kpop 트래픽 집중도



광고주들의  
관심도  
상승



대형 플랫폼은  
kpop 콘텐츠를  
활용도 증가



아시아와 북미 등  
main  
stream 시장으로  
의 연결

## \* BTS 관련주 차트를 통한 상승 및 하락 포인트

\*디피씨는 100% 자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에 1,000억원 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빅히트 관련주로 분류



## 투자 그래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아티스트 앨범 발매이후, 투자자들의 매도성향 및 주가 하락  
시점

엔터주 특성상, 인적 자원에 대한 불안정성을  
수치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연의 수익 배분구조 문제

팬덤의 특성 파악

감사합니다



2020.08.12

강민재

qhdwo1221@gmail.com

## ■ 목차

1. 사업 구조 분석

2. 매출액 비중

3. 변곡점 별 이슈

4. 종합 평가

# | 사업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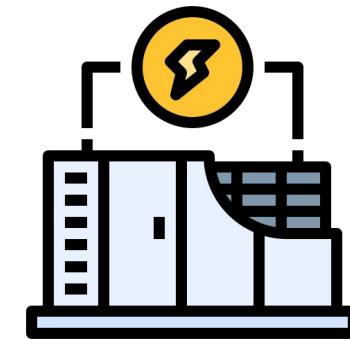
부동산 개발



신재생 에너지



ESS 사업



+ 가구사업

# 사업 구조 분석

## 부동산 개발 사업

### ■ 사업분야

주거시설·오피스, 주상복합·고급주거,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 저지선상화재·오피스텔  
상업시설 외·보험·쇼핑몰, 호텔

전설 35%, 부동산 사모 펀드 PM 65%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향후 부동산 시장에 경기 변동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된다.



디엔디인베스트먼트를 상장하여 운용중인

리츠 8개중 7개는 주거용 자산 =>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예정

부동산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회사 자체의 매출은 안  
좋아 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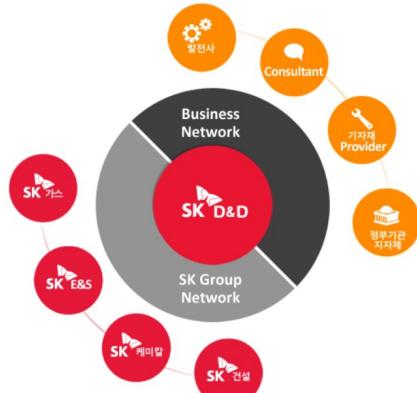
부동산 제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개발 위축 반해  
운용중인 주거용 자산 리츠의 경우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는 헛장 효과가 생길 가능성.

##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 태양광, 풍력 발전 주력

당사는 급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 속에서도 SUPEX 청진으로 푸처차운드 기증 시장을 활용한 대규모 Site를 수주하며 RPS제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 모델을 시현하였을 뿐 만 아니라 SK그룹의 일원이라는 강력한 brand value 를 바탕으로 발전차회사 및 세계 유수의 기자재 Provider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쌓아온 부동산 개발 Know-how를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 접목하여 Green Developer로써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의 새로운 Platform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시장 점유율

#### ④ 시장점유율

##### ①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 시장은 매우 방대하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연간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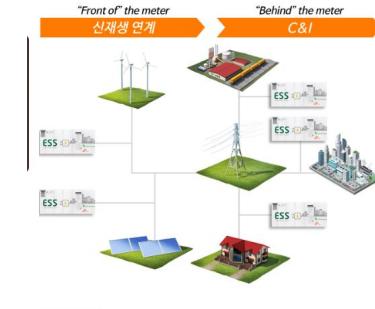
##### 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임대시장은 각 상품의 개별성이 강하고, 일몰일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차액률을 확인하기에는 시장규모가 광대하기 때문에 점유율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 ESS(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작년 초 LG 화학 화재 사건으로 ESS관련  
기업의 주가가 같이 하락

ESS(Energy Storage System)을 통해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신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C&I ESS 제공

SK D&D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상업 및 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은 낮은 약간 시간대에 충전하고, 요금이 높은 주간 시간대에 방전하여 고객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디밸류파밍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조로부터 설치, 설계, 운영, 유지보수까지 ESS 사업 전 과정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고객은 일체의 시설투자를 부담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 신재생 연계 ESS

신재생 연계 ESS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출�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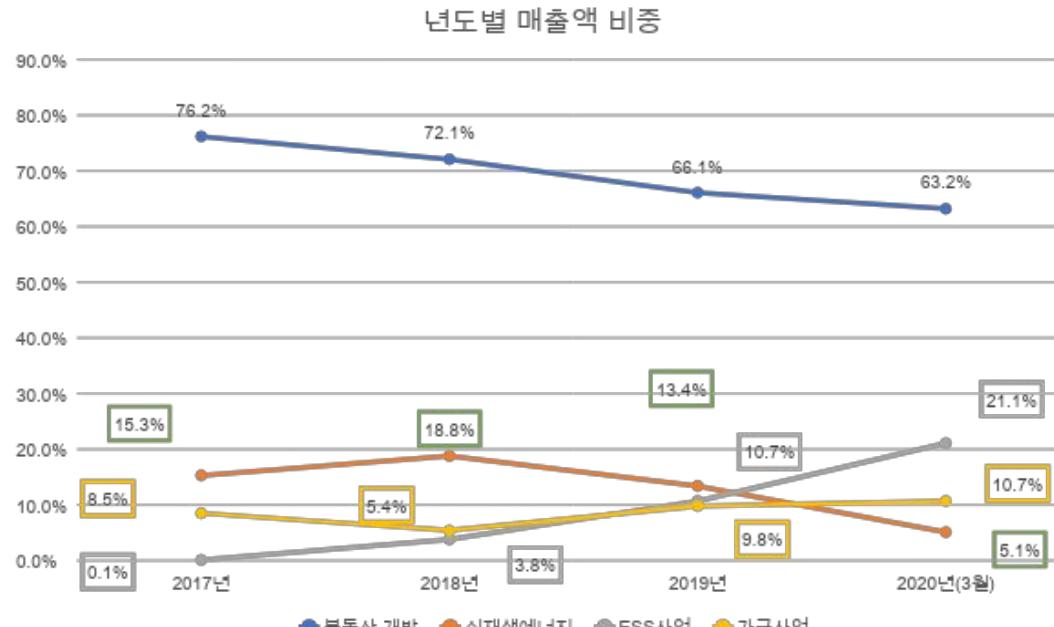
향후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분석 Solutions을 기반으로 DER(분산전원)으로서 ESS의 기능을 강화하고, P2P, VPP(Virtual Power Plant) 등 전력 Platform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신규사업 연료전지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인 연료전지는 친환경 분산형 전원으로써 최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한 축입니다. 당사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통해 기존의 풍력, 태양광, ESS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Eco Friendly Total Solution Provider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료 전지 및 ESS사업의 관건은 LG 화학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음

## |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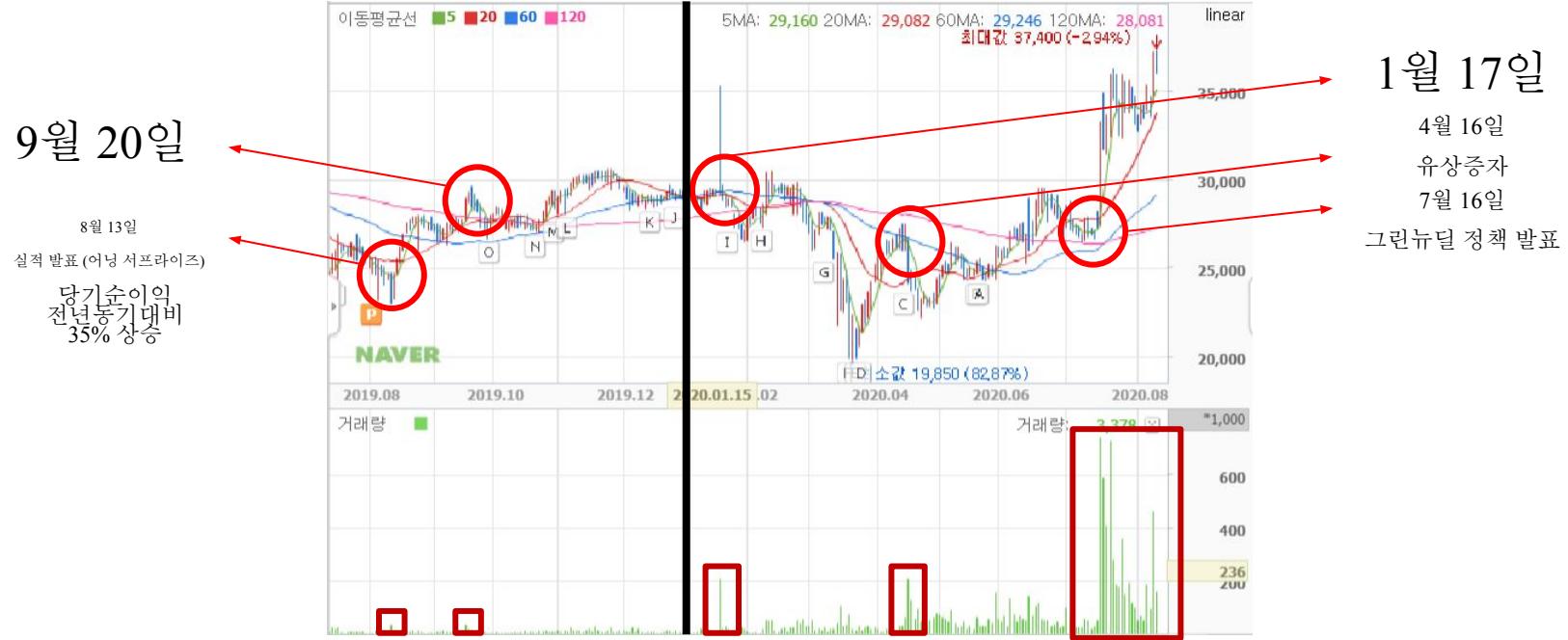


\* 가구사업 브랜드 (갤러리 디앤디)

LEICHT(라이히트), INTERLUBKE(인터립케), COR(코어), noblila(노빌리아)

- ESS 사업, 가구 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보인다.
- 가구 산업의 경우 인터넷 검색으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없었음.

# |변곡점 별 이슈 파악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변곡점인 점 5개를 선정  
3월 코로나 시즌의 폭락은 선정하지 않았음.  
선을 기준으로 19년도 20년도로 나눔.

## |종합 평가

- 최근 늘어난 거래량의 경우 정부 정책 그린뉴딜에  
수혜를 받음 결과임을 알 수 있었음.
- 사업 구조를 다각화 하여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추구하나  
**60%**가 넘는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SK** 지주 회사와는 별개 (**SK**지주 회사가 별개로 리츠회사 설립을 추진중임)
-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산업에 침체기가 온다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단순히 그린뉴딜 정책으로 오른 주가가 향후 유지 될 것인지도 미지수  
(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액은 오히려 줄고 있음)  
( 또한 이부분에서 같은 계열사의 **SK E&S**가 더 경쟁력이 있음 )
- 연료전지의 신규 사업은 **LG화학**과 경쟁..?
-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린뉴딜에 관한 좀더 자세한 자료 분석과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정보와 그래프가 필요함

○ 여기부터 용





넥슨GT 주가  
분석



기본정보

연간 차트 및 재무제표 분석

게임 테마 주식 영향 요소



넥슨 그룹구조



넥슨 실적

Nexon GT 주가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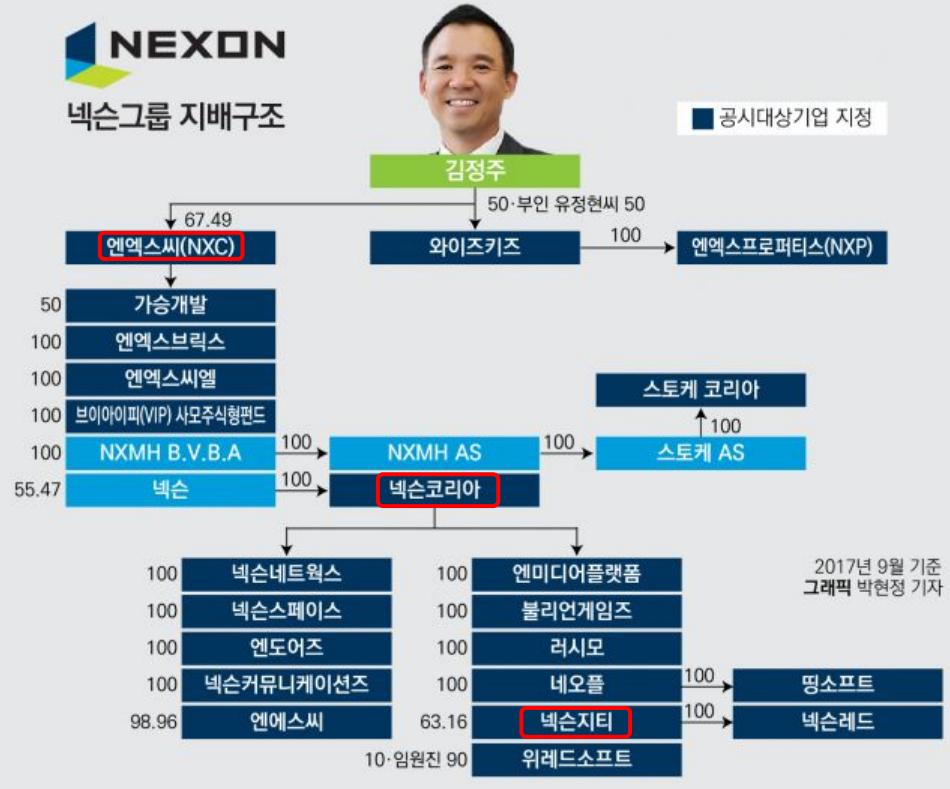
# | 기본정보

- 종목명 넥슨지티(041140) / 코스닥
- 시가 총액 4,000억대
- 상장주식수 35,373,322 주
- 주요주주 보유지분 넥슨코리아 63.18%, 자사주 2.99%
- 유통 주식수 33.83%
- 관련 테마 게임테마





## 넥슨그룹 지배구조



- 모기업 : NXC (일본상장)
- 투자: 모기업(넥슨)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 넥슨지티를 관련주로 둑여서 주가 변동
- 한국에 상장(KOSPI) 되어있는 기업이 넥슨지티

# | 기업개요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게임으로서는 서든어택(FPS), A.x.E(MMORPG)가 있음



- 최근 이슈 넥슨의 신작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피파모바일, 바람의나라 연 ) 발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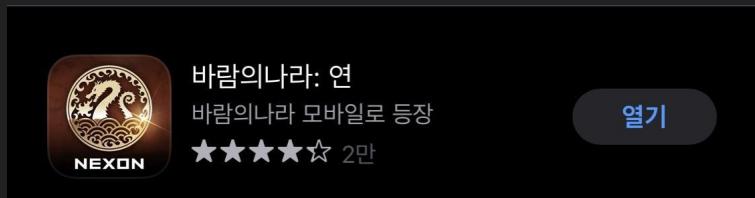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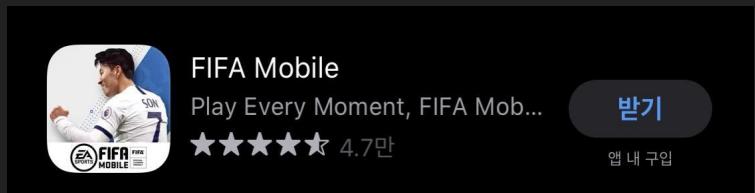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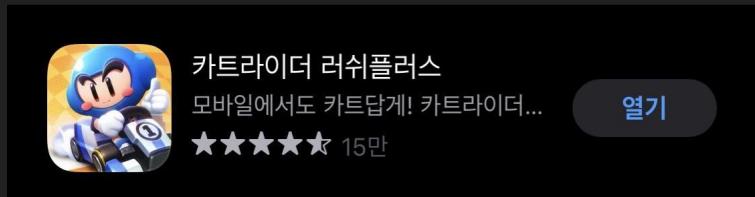
# | 연간 실적



최저수치 요인: 코로나 여파로  
PC게임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PC방 출입통제로  
하향 예상

상승세: 넥슨에서 기존 흥행했던  
피시게임을 모바일로 출시로  
흥행으로 인해 주가 폭등

# | 넥슨의 2020년 성공적인 모바일 게임 발매



- 2020년 5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모바일’ 발매  
(글로벌 누적 이용자 1,500만명)
- 2020년 6월 ‘FIFA 모바일’ 발매  
(FIFA는 축구게임 애호가들로 인한 매출 10위권)
- 2020 7월 ‘바람의 나라:연 모바일’ 발매  
(누적 다운로드 2주만에 300만명 돌파)
- 그간 모바일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던 넥슨의  
2020년 반전을 꽈하는 모습

## |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8월 12일 출시 예정



- 국내에서는 특정유저 이용 하지만 국외(중국)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어 과히 넥슨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음
-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사전 예약자만 5,500만명 이상
- 하지만 중국정부 과몰입 시스템 요청으로 인해 출시 미정
- 이 게임의 모바일 출시는 넥슨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넥슨지티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 2018년 중국시장에서 월드 온라인 총 수익 1위 달성

## | 넥슨지티 신작 게임 개발 절실



- 대표적 게임은 '서든어택'으로 대표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함  
2019년 'AxE(MMORPG) 게임을 발매하고, 글로벌 출시로  
매출에 도움이 되었지만 큰 성과로 보이진 않음
- '서든어택'의 경우 오랜 서비스 기간 및 경쟁 FPS게임  
등장에 따라 유지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 | 재무정보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                                       |
|-----------------------------|---------------------------------------|---------------------------------------|---------------------------------------|
|                             | 제 27 기<br>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26 기<br>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제 25 기<br>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 (단위 : 원)                              |                                       |                                       |
| 매출액                         | 30,214,784,531                        | 32,459,785,242                        | 49,273,127,053                        |
| 매출원가                        | 21,255,766,804                        | 25,385,260,916                        | 23,573,223,572                        |
| 매출총이익                       | 8,959,017,727                         | 7,074,524,326                         | 25,699,903,381                        |
| 판매비와관리비                     | 37,539,746,428                        | 32,096,685,377                        | 28,253,213,396                        |
| 대손상각비(환입)                   | 134,425,678                           | 171,259,758                           | (234,422,987)                         |
| 영업이익(손실)                    | (28,715,154,379)                      | (25,193,420,809)                      | (2,318,887,028)                       |
| 기타수익                        | 32,486,527,578                        | 1,861,018,441                         | 1,026,195,405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                                       | 1,694,078,390                         |
| 기타비용                        | 107,266,517                           | 771,178,168                           | 15,445,274,129                        |
| 기타의대손상각비                    | 971,439,021                           | 1,237,623,751                         |                                       |
| 이자수익                        | 1,215,094,716                         | 1,236,849,862                         | 1,252,635,650                         |
| 금융수익                        | 118,438,046                           | 121,953,269                           | 631,129                               |
| 금융원가                        | 1,512,815,304                         | 860,746,609                           | 667,013,47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513,385,119                         | (24,843,147,765)                      | (14,457,634,062)                      |
| 법인세비용                       | (414,341,568)                         | 291,741,766                           | (1,216,237,977)                       |
| 당기순이익(손실)                   | 2,927,726,687                         | (25,134,889,531)                      | (13,241,396,085)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손실)    | 2,927,489,556                         | (25,135,120,445)                      | (13,241,104,465)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이익(손실)        | 237,131                               | 230,914                               | (291,620)                             |
| 총포괄손익                       | 2,927,726,687                         | (25,134,889,531)                      | (13,241,396,085)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총포괄순이익(손실) | 2,927,489,556                         | (25,135,120,445)                      | (13,241,104,465)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총포괄순이익(손실)     | 237,131                               | 230,914                               | (291,620)                             |
| 주당미익                        |                                       |                                       |                                       |
| 기본주당미익(손실) (단위 : 원)         | 85                                    | (732)                                 | (386)                                 |
| 회식주당미익(손실) (단위 : 원)         | 85                                    | (732)                                 | (386)                                 |

- 2017 – 2019 매출액 지속하락
- 2017(490억)에서 2019(300억)  
60% 하향
- 단 2020년 1분기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흑자 전환
- 넥슨지티 모회사 넥슨의 2020년  
모바일 게임들의 성공적인 발매  
및 던파 모바일 중국 발매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넥슨지티 실적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게임 분야 주식 영향 요소

PC To  
Mobile



게임 정책 및  
한중관계



지속적인 유저  
관리



- 서비스 정책 지속 개선
- 지속적인 연구 개발
- 밸런스 폐치

## | 넥슨GT 주가 예측

상승 한계점에 도달 할 가능성이 높음

- 이슈 모멘텀이 당사자가 아닌 모회사 넥슨의 모바일 출시로 인해 주가가 급등
- 차트 단기간 폭등으로 지속 상향 어려워 보임
- 코로나 특수 + 게임주 – 유동성에 의한 대세 상승
- 이번 상승 파동 이후에 큰 조정이 예상 됨

감사합니다

참고

# NAVER

## 네이버 주가 분석

이문형

# 목차

1. 분석 개요
2. 기업 분석
3. 중장기적 추세분석
4. 단기적 추세분석
5. 결론

# 1. 분석 개요

- NLP 활용 방안 모색

1) What :

- 뉴스(어떤? ex. 네이버증권 종목별 뉴스)
- SNS(어떤? 누구?), 토론실(어떤? ex. 네이버 종목토론실)
- 증권사 레포트(어떤? 대부분 pdf 파일로 존재함(pdf크롤링))  
요약본(=뉴스) → AI 알고리즘이 뉴스를 작성하는 문제)
- 공시(pdf)

2) How :

- 투자 키워드 분석 모델은 예측 모델이랑 별도의 모델로 이해함  
종목 선택 → 워드 클라우드

- NLP 결과를 예측 모델의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

Ex. 문서 분류(주가에 영향x/상승/하락)

→ 라벨링 필요, 같은 날 많은 문서(뉴스 등) 어떻게 라벨링?

→ 상승/하락 문서의 핵심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수로 활용

뉴스별로 보도시간과 주식시장 개장시간 사이의 갭 →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필요

- 최적의 변수를 선택

고려 가능 변수 :

1) 기술적 분석(시계열 분석, 패턴 분석)

- 주가, 거래량 등 차트 데이터

2) 기본적 분석

- 시장가치 : 시가총액
- 수익가치 : PER(주가수익비율), PSR(주가매출액비율), PCR(주가현금흐름비율)
- 자산가치 : PBR(주가순자산비율)
- 기업실적(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 성장성(산업군, 비전, 전략, ceo)

3) 시장 환경, 전문가 분석

- 경제상황, 경기흐름(주가지수, 금리, 환율)
- 컨센서스(투자의견, 목표주가, 추정실적)
- 뉴스 등의 문서로부터 나온 데이터 (의미 있는 이벤트 도출) -> 추세 이탈

## 2. 기업 분석

## ▪ 기업 실적

- 모든 사업부문의 성장(쇼핑 + 금융 + 웹툰)에 힘입어, 2Q20 기준, 2조원에 육박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
- 영업이익 역시 2000억원 이상을 거둬들이며 최대치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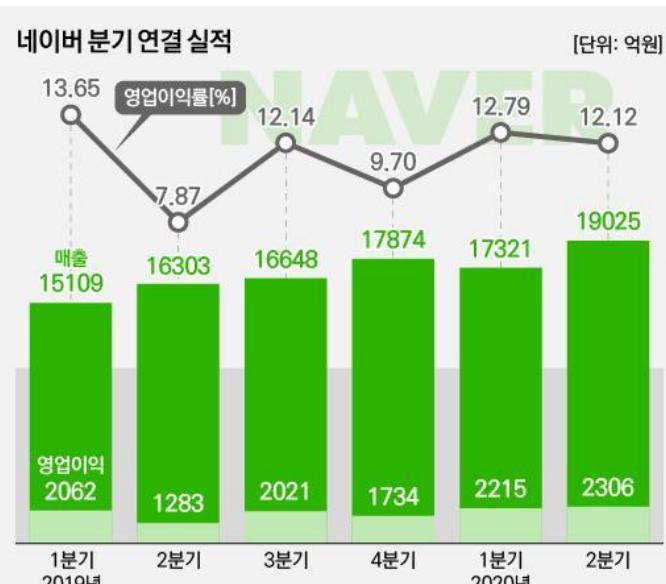


도표 1. 네이버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              | 1Q19          | 2Q19          | 3Q19          | 4Q19          | 1Q20          | 2020P         | 3Q20E         | 4Q20E         | 2018          | 2019          | 2020E         |
|--------------|---------------|---------------|---------------|---------------|---------------|---------------|---------------|---------------|---------------|---------------|---------------|
| <b>매출액</b>   | <b>15,108</b> | <b>16,303</b> | <b>16,648</b> | <b>17,874</b> | <b>17,321</b> | <b>19,025</b> | <b>19,796</b> | <b>21,169</b> | <b>55,869</b> | <b>65,933</b> | <b>77,310</b> |
| YoY          | 15.4          | 19.6          | 19.1          | 17.9          | 14.6          | 16.7          | 18.9          | 18.4          | 19            | 18.0          | 17.3          |
| 광고           | 9%            | 1,422         | 1,666         | 1,527         | 1,718         | 1,440         | 1,747         | 1,773         | 2,013         | 5,730         | 6,333         |
| 비즈니스플랫폼      | 41%           | 6,693         | 7,159         | 7,193         | 7,465         | 7,497         | 7,772         | 8,066         | 8,247         | 24,758        | 28,510        |
| IT플랫폼        | 9%            | 992           | 1,059         | 1,163         | 1,360         | 1,482         | 1,802         | 2,159         | 2,392         | 3,559         | 4,574         |
| 콘텐츠서비스       | 4%            | 350           | 501           | 545           | 699           | 554           | 796           | 892           | 999           | 1,258         | 2,095         |
| LINE 및 기타플랫폼 | 36%           | 5,651         | 5,918         | 6,220         | 6,632         | 6,348         | 6,908         | 6,906         | 7,519         | 20,564        | 24,421        |
| <b>영업비용</b>  | <b>13,046</b> | <b>15,020</b> | <b>14,627</b> | <b>16,140</b> | <b>15,106</b> | <b>16,719</b> | <b>17,189</b> | <b>18,465</b> | <b>46,445</b> | <b>58,833</b> | <b>67,479</b> |
| YoY          | 24.0          | 34.9          | 24.4          | 23.8          | 15.8          | 11.3          | 17.5          | 14.4          | 33            | 26.7          | 14.7          |
| 플랫폼개발/운영     | 2,184         | 2,346         | 2,287         | 2,524         | 2,594         | 2,637         | 2,771         | 3,112         | 7,697         | 9,341         | 11,114        |
| 대행/파트너       | 2,770         | 2,982         | 3,046         | 3,397         | 3,205         | 3,610         | 3,815         | 4,013         | 10,355        | 12,195        | 14,643        |
| 인프라          | 758           | 804           | 850           | 948           | 892           | 1,100         | 1,147         | 1,160         | 2,531         | 3,360         | 4,299         |
| 마케팅          | 658           | 1,029         | 1,221         | 1,231         | 1,207         | 1,381         | 1,444         | 1,501         | 3,382         | 4,139         | 5,533         |
| LINE 및 기타플랫폼 | 6,676         | 7,859         | 7,223         | 8,040         | 7,208         | 7,991         | 8,011         | 8,678         | 22,480        | 29,798        | 31,888        |
| <b>영업이익</b>  | <b>2,062</b>  | <b>1,283</b>  | <b>2,021</b>  | <b>1,734</b>  | <b>2,215</b>  | <b>2,306</b>  | <b>2,607</b>  | <b>2,704</b>  | <b>9,424</b>  | <b>7,100</b>  | <b>9,832</b>  |
| YoY          | -19.7         | -48.8         | -8.9          | -18.7         | 7.4           | 79.6          | 29.0          | 55.9          | 20            | -24.7         | 38.5          |
| 영업이익률        | 13.6          | 7.9           | 12.1          | 9.7           | 12.8          | 12.1          | 13.2          | 12.8          | 16.9          | 10.8          | 12.7          |
| <b>당기순이익</b> | <b>909</b>    | <b>279</b>    | <b>853</b>    | <b>(26)</b>   | <b>994</b>    | <b>907</b>    | <b>1,272</b>  | <b>1,415</b>  | <b>6,278</b>  | <b>3,968</b>  | <b>4,943</b>  |
| 순이익률         | 6.0           | 1.7           | 5.1           | -0.1          | 5.7           | 4.8           | 6.4           | 6.7           | 11.2          | 6.0           | 6.4           |

자료: 네이버, DB 금융투자

## ■ 사업부문 개요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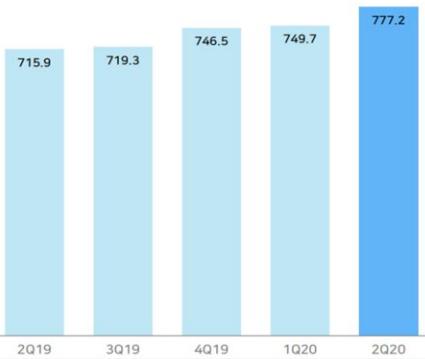
### 비즈니스플랫폼 CPC/CPS 상품

- 검색광고
- 쇼핑 > 일반
- 모바일 > 기타

NAVER

#### 분기별 매출

단위: 십억원



2Q20 YoY 8.6%↑ / QoQ 3.7%↑

-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 지속으로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YoY 64% 성장
-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도입으로 이용자 혜택 강화, 라이브 커머스, 비즈어드바이저 등 기술 및 데이터 지원으로 SME와 동반 성장 지속

네이버 쇼핑 성장 → 쇼핑 검색량 증가 → 쇼핑 광고량/광고단가 상승 →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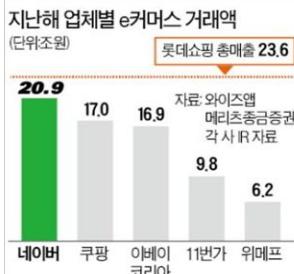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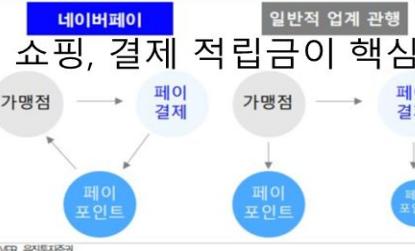


도표 17 네이버 생태계 핵심은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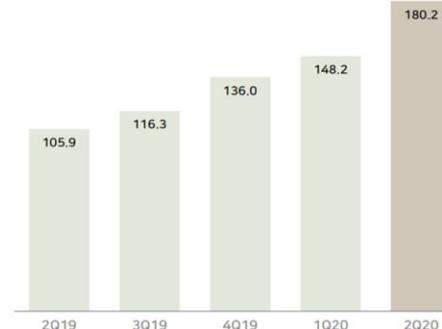
### IT플랫폼 네이버페이, 클라우드, 웍스, IT서비스 등

NAVER

#### 분기별 매출

단위: 십억원

2Q20 YoY 70.2%↑ / QoQ 21.6%↑



- 온라인 쇼핑 증가와 외부 결제처 확대로 네이버페이 거래액 YoY 56% 성장
- 비대면 문화 확산 속 클라우드의 신규 고객 추가 및 사용량 증가

네이버 페이 : 네이버 쇼핑의 시너지 효과  
→ 데이터 3법 호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외국계(AWS, Azure)  
70~80%  
→ 디지털 뉴딜 정책 호재

#### 주요 국내 클라우드 전략

##### 삼성SDS

클라우드 보안 토클 서비스 제공

##### LG CNS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 '클라우드엑스피' 출시

##### SK C&C

자체 브랜드 '클라우드 Z' 서비스 플랫폼

##### KT

5년간 5,000억원 투자...5G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설립 계획

##### NHN

공공 특화 클라우드 '토스트 G'

##### 티맥스

하반기 통합 클라우드 '스택' 출시 예정

## ■ 사업부문 개요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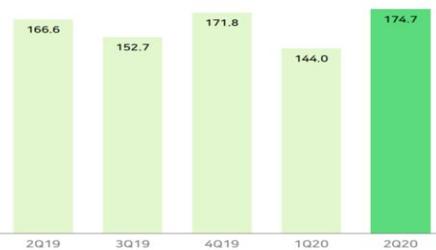
###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

- 노출 광고
- 일반, 쇼핑, 동영상
- 동영상 광고는 유튜브에 참패

NAVER

#### 분기 별 매출

단위:십억원



2Q20 YoY 4.9% ↑ / QoQ 21.3% ↑

- 성과형 광고 확장으로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 하반기 성과형 광고 확대 적용을 비롯해 자동입찰 고도화, 타게팅 강화로 광고 효율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

### LINE 및 기타 사업부문 영업이익

단위:십억원



### 라인 매출

- 핵심사업 : 광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 전략사업 : 라인프렌즈, 펀테크, AI, 모바일, 커머스
- 라인 페이(성장중, 일본)

### 스노우

### 콘텐츠서비스 웹툰, 뮤직, V LIVE 등

NAVER

#### 분기 별 매출

단위:십억원



2Q20 YoY 58.9% ↑ / QoQ 43.8% ↑

- 웹툰 글로벌 MAU 6,400만명 달성  
2분기 거래액 YoY 57% 성장
- V LIVE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로 매출 회복

### 웹툰

- 하반기, 미국 법인 거점으로 글로벌(유럽) 사업 확장에 나섬

### 매출, 방문자 측면 세계 1위

경쟁사 카카오페이지 아시아 거점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성장속도 : 네이버 > 카카오, 수익성 : 카카오 > 네이버

- IP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8월 라인디지털프론티어(일본 라인망가 서비스)와 합병 예정

- 사업부문 개요 및 실적

- 광고로 돈 벌고 금융, 콘텐츠에 투자
- 쇼핑/예약 → 페이 → 금융서비스 연계  
(앤티파이낸셜, 페이스북 샵)

|              |
|--------------|
| New 광고시장     |
| New 이커머스     |
| New 지급, 결제시장 |
| New 금융, 펀테크  |
| New 콘텐츠      |



### 주요 빅테크 금융 현황

|         | 네이버파이낸셜  | 카카오  | 토스   |
|---------|--|--|--|
| 가입자     | 3,000만여명<br>(네이버페이)  | 3,300만명(카카오페이)<br>1,200만명(카카오뱅크)   | 1,700만명  |
| 금융사업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사 제휴 통한 대출, 보험 등 사업 추진</li> <li>AI, 머신러닝 등 기술력으로 신용평가시스템, 보안 등 차별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증권, 보험 등 직접 라이센스 확보 지향</li> <li>독자적 금융 사업 추진하면서 동시에 금융사 제휴 상품 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하반기 토스증권, 내년 토스뱅크 설립 예정</li> </ul>   |
|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금융사와 길등 해결은 과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카오톡과 기반 금융 서비스 우위 유지 과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테크에서 시작한 만큼 네이버·카카오와 차별화 관건</li> </ul> |

-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로부터 투자를 유치(지분 30%, 8000억 원)하였고, 라인은 Z홀딩스와 경영통합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분야와 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
- 테크핀, 콘텐츠, B2B 등 신규 사업 영역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
- 클로바 AI, 클라우드, 핀테크 미래 기술 R&D에도 적극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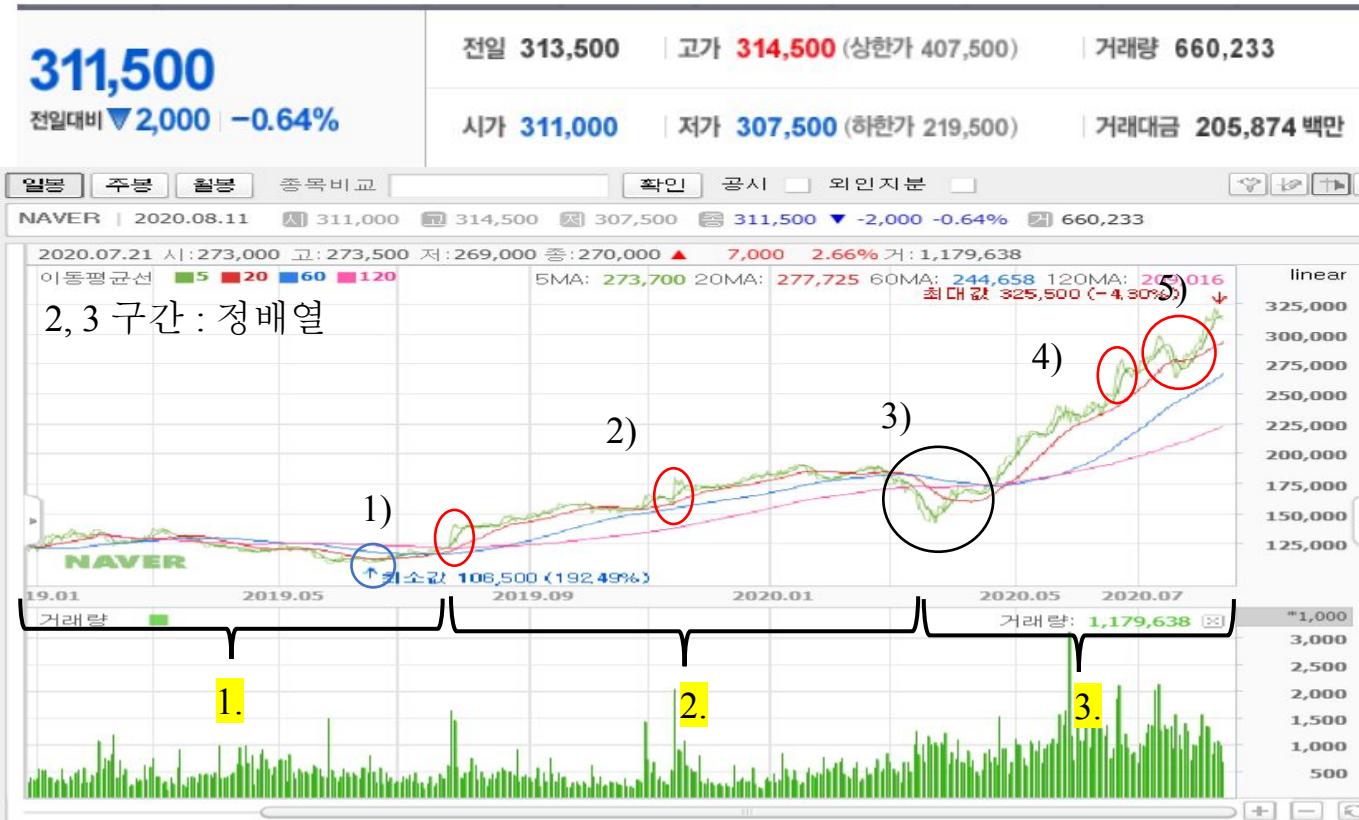
### 3. 중장기적 추세 분석

- 부진한 실적(라인 등에서 영업손실, 일본 판테크 시장선점 비용)이지만, 중장기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투자
- 향상된 실적(라인 영업손실 개선, 자회사 가치 상승) 및 테크핀 기대감 확대
- 언컨택트 수혜주(플랫폼 기업)+ 합병 시너지 = 최고치 실적 갱신

NAVER 035420 코스피 2020.08.11 기준(장마감) 실시간 기업개요 ▾

MY STOCK 추가

빠른주문



| 투자정보                | 호가 10단계           |
|---------------------|-------------------|
| 시가총액                | 51조 1,680억원       |
| 시가총액순위              | 코스피 5위            |
| 상장주식수               | 164,263,395       |
| 액면가   매매단위          | 100원   1주         |
| 외국인한도주식수(A)         | 164,263,395       |
| 외국인보유주식수(B)         | 91,171,111        |
| 외국인소진율(B/A) (%)     | 55.50%            |
| 투자의견   목표주가         | 4.00매수   364,167  |
| 52주최고   최저          | 325,500   135,000 |
| PER   EPS(2020.03)  | 80.43배   3,873원   |
| 추정PER   EPS         | 55.31배   5,632원   |
| PBR   BPS (2020.03) | 6.82배   45,682원   |
| 배당수익률   2019.12     | 0.12%             |
| 동일업종 PER            | 202.42배           |
| 동일업종 등락률            | -0.78%            |

## 4. 단기적 추세 분석

NAVER | 2020.08.11 시: 311,000 고: 314,500 저: 307,500 종: 311,500 ▲ 2,000 1.66% 거: 445,122



### 1) 변곡점

2019.06.18

- 일본 자회사 라인의 페이(간편 결제) 사업 부진 기사  
(마케팅 비용 증가)  
→ 원인 규명 실패

### 추세이탈 (주가상승)

2019.07.25

- 실적 공지로 인한 주가 상승

2019.12.12 시 174,500 고 176,500 저 173,000 종 175,500 ▲ 1,500 0.86% 거 609,714

이동평균선 5 20 6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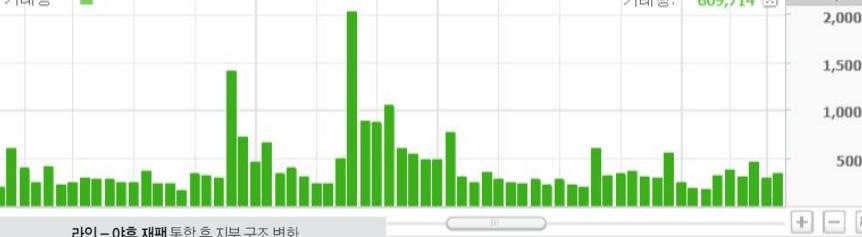
5MA: 174,600 20MA: 172,775 60MA: 162,683 120MA: 148,204

최대값 190,000 (6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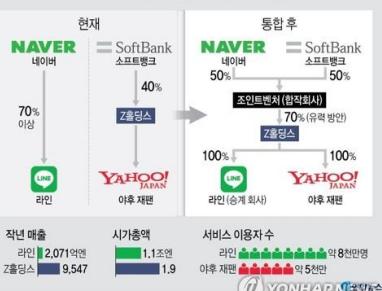
linear

2019.11.14

장대양봉



## 라인 – 야후 재팬 통합 후 지분 구조 변화



## 2) 추세 이탈 (주가상승)

2019.11.14

■ 소프트뱅크 야후 재팬과 라인의 합병 추진 소식에 주가 급등

→ 라인에서의 손실 상쇄하면서, 순이익 증가

(일본 펍테크 시장 우위 효과, 슈퍼 앱 효과, 미중 IT거인과 맞서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fnRASSI]NAVER, 52주 신고가...10.13%↑

파이낸셜뉴스

2019.11.14 10:09

'NAVER' 10% 이상 상승, 3Q19 Review: 4분기 증익 ...

한국경제

2019.11.14 10:03

└ 「NAVER」 52주 신고가 경신, 3Q19 Review: 4분기 증...

한국경제

2019.11.14 10:03

"네이버 판매상품 '복불' 하면 끝" 위메프, 파트너 모시기 '훨얀'

매일경제

2019.11.14 09:26

네이버, 야후재팬 합병시 日 동남아 경쟁력 강화-KB

아데일리

2019.11.14 09:11

"네이버, 라인–야후재팬 합병 영향 긍정적"–NH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2019.11.14 08:33

└ [Hot-Line] 「NAVER, 라인 야후재팬 합병은 상당히 긍정적...

매일경제

2019.11.14 08:28

관련뉴스 1건 더보기▼

네이버 '라인'·손경의 '야후재팬' 경영통합한다

아데일리

2019.11.14 08:27

└ 「네이버 日자회사 라인, 야후 재팬과 경영통합 추진」

서울경제

2019.11.14 08:07

韓네이버 '라인'+日소프트뱅크 '야후' 경영통합 최종 조정단계

파이낸셜뉴스

2019.11.14 01:52

"야후 재팬–네이버 라인 합병 논의 중"…거대 디지털 플랫폼 탄생하...

서울경제

2019.11.13 23:28

└ 「일언론」 "야후 재팬–라인, 합병 논의…소프트뱅크–네이버가 협상中"

아시아경제

2019.11.13 23:15

공정위 "네이버·구글 지배력 남용"…조만간 심사보고서 제출

N

매일경제

2019.11.13 17:52

└ [단독]"네이버 구글 지배력 남용 결론" 공정위 칼 뻤다

아데일리

2019.11.13 06:05

관련뉴스 1건 더보기▼

네이버도 유튜브도…인플루언서 뛰놀 '판' 팔아주는 IT 플랫폼 [김은지...]

한국경제

2019.11.13 16:10



P

|   |      |                  |
|---|------|------------------|
| 네이버·카카오 주총 워크…호실적에 나란히 대표 '연임' 확실시        | 한국경제 | 2020.03.24 13:22 |
| 네이버, 데이터 컨설팅·라이브 캐머스…종합 쇼핑플랫폼·도약          | 매일경제 | 2020.03.24 04:04 |
| [클릭 e종목] 네이버, 코로나로 광고 줄었지만…전자상거래·웹툰 '초호황' |      |                  |
| 아시아경제   2020.03.25 08:04                  |      |                  |

코로나19에 전자상거래 매출↑…웹툰도 전 세계에서 증가세  
하반기 네이버파이낸셜 금융상품 본격 출시…신사업 위주 '체질 개선'

### 3) 변곡점 (코로나19)

2020.03.24

- 하강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 실적 악화
- 상승 :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e커머스, 웹툰, 금융, 플랫폼 등 비대면 사업에 긍정적인 영업환경이 기대 → 원인 규명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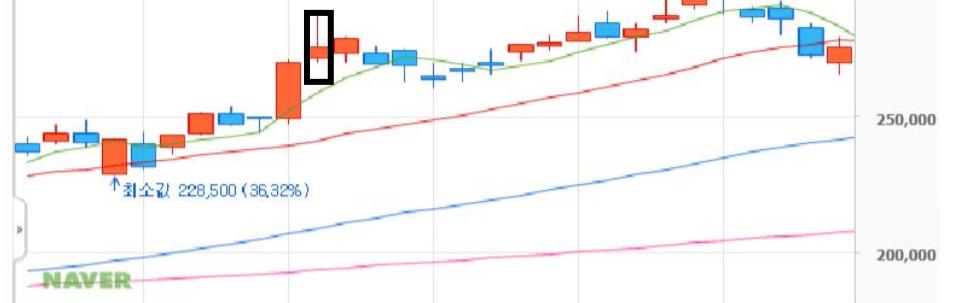
NAVER | 2020.08.11 ⌂ 311,000 ⌂ 314,500 ⌂ 307,500 ⌂ 311,500 ▼ -2,000 -0.64% ⌂ 660,233

2020.07.07 ⌂ 285,000 고: 289,500 저: 279,000 총: 279,500 ▼ -2,000 -0.71% 거: 1,365,047

이동평균선

■ 5 ■ 20 ■ 60 ■ 120 5MA: 276,900 20MA: 261,425 60MA: 226,775 120MA: 201,016  
최대값 308,500 (0.97%)

2020.06.23



[fnRASSI] NAVER, 52주 신고가... 2.41% ↑

└ [fnRASSI] NAVER, 52주 신고가... 3.52% ↑

아모레·네이버 순 잡았다… “온 오프라인 유통 시너지 강화”

└ 네이버와 손잡는 뷰티업계…아모레 네이버와 MOU 체결

관련뉴스 1건 더보기 ▾

NAVER, 최근 5일 개인 64만 7912주 순매도… 주가 27만...

파이낸셜뉴스

2020.06.23 15:06

파이낸셜뉴스

2020.06.23 10:15

조선비즈

2020.06.23 14:54

서울경제

2020.06.23 14:49

P

NAVER, 최근 5일 개인 64만 7912주 순매도… 주가 27만...

아시아경제

2020.06.23 12:31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음성·영상 상담 도입

└ “보이고 들려야 ‘찐’ 상담이지”…네이버 지식IN에 음성·영상 기...

관련뉴스 1건 더보기 ▾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디지털 전환 협업…라인웍스·클라우드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0.06.23 11:40

서울경제

2020.06.23 11:10

[특집주] 다시 가는 언택트…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 최고가 경신

서울경제

2020.06.23 10:18

카카오·네이버에서도 속았다…허위 광고 13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0.06.23 10:01

아모레퍼시픽,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디지털사업 역량 강화

└ 아모레퍼시픽, 네이버와 MOU…“상품 개발, 해외 진출 함께”

분기 최대 실적 네이버, 신세계 ‘쓱닷컴’ 턱밑 추격…페이스북도 참전

파이낸셜뉴스

2020.06.23 09:55

이데일리

2020.06.23 09:55

엔씨소프트·네이버·카카오, 신고가…언택트株 강세

아시아경제

2020.06.23 09:53

조선비즈

2020.06.23 09:51

#### 4) 추세 이탈 (주가상승)

2020.06.23

##### ■ 네이버 역대 최고 분기 매출 전망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부문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

##### ■ 아모레퍼시픽과 MOU 체결

네이버-아모레퍼시픽, 전방위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

온·오프라인 시너지 강화로 디지털 사업 역량 강화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라인웍스'·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검토



주요 사회적 이슈  
2020.07.14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발표

5) 변곡점

2020.07.13

→ 원인 규명 실패

"신세계 네이버만 믿고 투자했는데..."  
[단독] "신세계 네이버 보고 투자했는데..." '넥펀' 피해자들 '울분'

N

해럴드경제  
2020.07.15 11:43  
해럴드경제  
2020.07.15 10:03

NAVER, 주가 28만 7500원 (0.17%)… 계시판 '북적'

아시아경제  
2020.07.15 11:31

'최초, 최대, 천환경'…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가 주목받는 이유

아시아경제  
2020.07.15 09:07

네이버 카카오·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에 준비된 회사-SK

이데일리  
2020.07.15 08:20

외부판매자 로켓 태우는 쿠팡…32만 대구' 네이버 대격할까

서울경제  
2020.07.15 05:15

14일, 기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0.75%), NAVER(-3.37...)

한국경제  
2020.07.14 18:36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 화상연결…한성숙 "AI분석 데이터 모두 개방"

매일경제  
2020.07.14 16:30

[한국판 뉴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다양한 데이터 공개, 사회 발전에..."

파이낸셜뉴스  
2020.07.14 16:08

네이버 한성숙 "정보, 글로벌 경쟁 위한 정책 만들어 주길"(종합)  
관련뉴스 2건 더보기 ▾

P

이데일리  
2020.07.14 16:08

대학생 취업희망 1순위는 IT…1위 카카오·2위 네이버

한국경제  
2020.07.14 11:02

대학생 선호 기업 2위는 '네이버'…1위는?

이데일리  
2020.07.14 07:55

NAVER, 최근 5일 개인 116만 3580주 순매수… 주가 28...

아시아경제  
2020.07.14 10:30

'쇼핑제국' 네이버에 쿠팡도 눈치…카카오는 '선물하기' 만 3조

매일경제  
2020.07.13 17:31

네이버 카카오 "PB상품 팔지 않고 플랫폼역할 충실했"

매일경제  
2020.07.13 17:31

"네이버로 시장 짜베기도 배달되네"…골목상권 바꾸는 간편결제

P

한국경제  
2020.07.13 16:52

보스-네이버 시리즈온, 7/13~8/9 '보스 TV 스피커' 증정 이벤...

아시아경제  
2020.07.13 16:23

보스(BOSE)-네이버 시리즈온, '보스 TV 스피커' 증정 이벤트 ...

헤럴드경제  
2020.07.13 16:02

네이버 AI 장소추천 '스마트어라운드', 네이버지도에 탑재

파이낸셜뉴스  
2020.07.13 15:21

"오늘의 맛집은 어디?"…네이버 지도, AI로 장소 추천

헤럴드경제  
2020.07.13 10:51

관련뉴스 1건 더보기 ▾

네이버랩스-성남시, AI·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P

파이낸셜뉴스  
2020.07.13 14:22

'무한증식' 네이버-카카오…목적지는 '금융 꼭짓점' P

헤럴드경제  
2020.07.13 11:42

네이버페이 '적립의 맛'…카카오페이지 '투자의 재미'

헤럴드경제  
2020.07.13 1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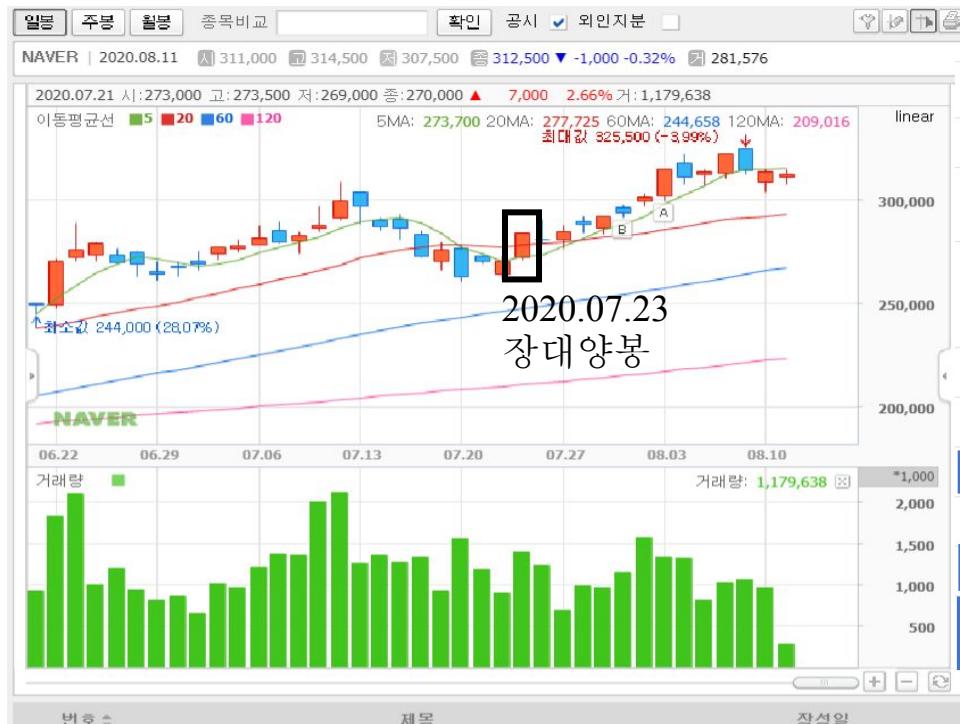
개미들, 카카오 대신 네이버…넷마블 대신 엔씨, 이유는?

매일경제  
2020.07.13 11:33

네이버에 칼 겨눈 공정위…관련 안건만 3개

N

아시아경제  
2020.07.13 11:28



주요 사회적 이슈  
2020.07.14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발표

|  |                 |                                      |
|--|-----------------|--------------------------------------|
| 한화건설, KT-LG전자·네이버와 손잡고 포레나에 AI 기술 도입   | 서울경제            | 2020.07.23 14:02                     |
| [itM-특집주] 네이버 장중 5% 상승, 증시 약세장 짹쓸이   | 헤럴드경제           | 2020.07.23 13:59                     |
|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660% 늘었다 P<br>↳ 동영상 쇼핑에 힘주는 네이버…'쇼핑라이브' 30일 출격                     | 파이낸셜뉴스<br>헤럴드경제 | 2020.07.23 12:12<br>2020.07.23 10:48 |
| '공짜 서비스'도 네이버가 하면 유료<br>↳ 삼성 잡자고 공짜를 유료로?…네이버, 보험비교서비스 논란                          | 헤럴드경제<br>헤럴드경제  | 2020.07.23 11:38<br>2020.07.23 10:36 |
| 관련뉴스 1건 더보기 ↴  |                 |                                      |
| 한화건설, KT-LG전자와 포레나 AI 스마트홈 구축 MOU 체결…네이… P   | 매일경제            | 2020.07.23 11:24                     |
| "네이버 클라우드 연매출 1조 쏟다!"…'뉴로클라우드' 본격 출시 P   | 헤럴드경제           | 2020.07.23 10:52                     |
| 금융위원회 만난 5대 금융지주 회장, 네이버·카카오 금융업 진출에 우려 P, N 조선비즈                                  | 조선비즈            | 2020.07.23 10:51                     |
| "누가 썼는지가 중요"…네이버, 오늘부터 출처·언론사 강조   | 서울경제            | 2020.07.23 07:10                     |
| 네이버 자보 비교견적 서비스 예고에 손보업계 '기대반 우려반' P   | 파이낸셜뉴스          | 2020.07.23 07:00                     |
| 네이버 바이브, 'VIBE X 아티스트 멤버십' 출시…팬심 공략 P<br>↳ 네이버 바이브, 'VIBE X 아티스트' 출시 …"팬과 연결고리 확대" | 파이낸셜뉴스<br>이데일리  | 2020.07.22 18:33<br>2020.07.22 09:15 |

5) 변곡점  
2020.07.23  
→ 원인 규명 실패

## 5) 변곡점

[빅테크, 빅체인]식품·패션 '온라인' 둥지…네이버·카카오 동침도 불사

아시아경제

2020.07.22 11:00

금융위원장 만난 5대 금융지주 회장, 네이버·카카오 금융업 진출에 우려

조선비즈

2020.07.23 10:51

카카오·네이버, 다시 급등…2분기 호실적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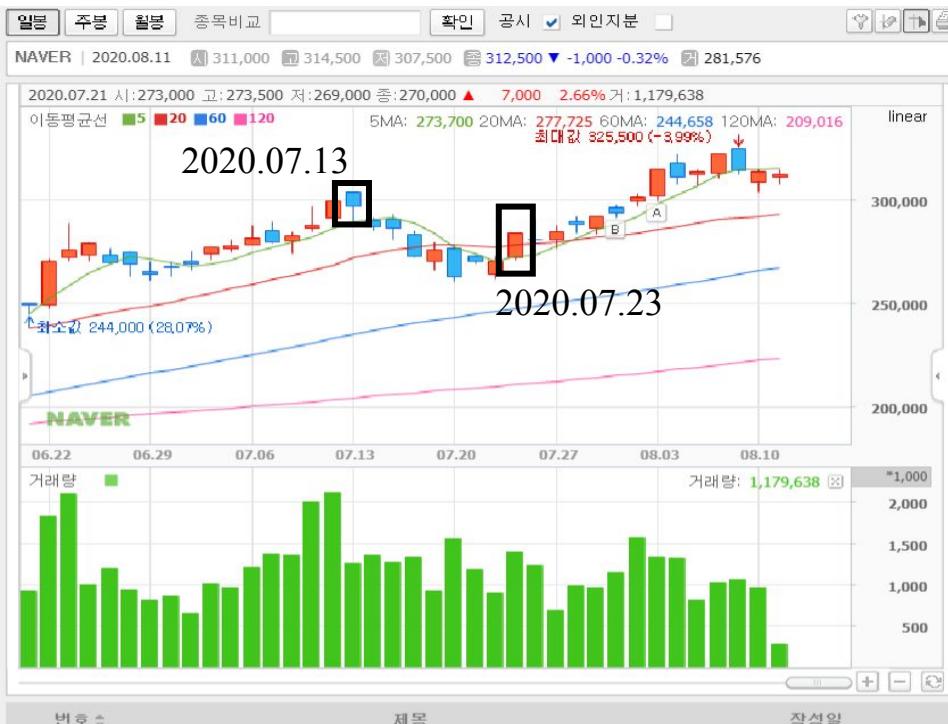
한국경제

2020.07.21 09:13

- 네이버와 카카오의 변곡점이 일치했음. 주제 또한 유사함

07.23에 두 기업의 2분기 호실적 기대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함(실적 발표날짜 : 네이버 07.30, 카카오 08.06)

- 과연 어떤 뉴스를 변수로 추가하는 것이 유의미할까? → 고민 필요 (ex. 인수합병, 실적변동에 높은 가중치)



네이버



카카오

# 5. 결론

## 결론

- 과연 어떤 뉴스를 변수로 추가하는 것이 추세 이탈에 유의미 할까? → 고민 필요
- : 분석 결과만 보면 ‘인수합병’, ‘실적변동’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종목별 뉴스가 아닌 경우, 높은 가중치를 두어야 할 키워드?

→ 정책(데이터3법, 디지털 뉴딜->호재), 경기, 전쟁, 천재지변(코로나), 글로벌 피어 및 경쟁사(사업부문별) 종목별 뉴스 등

그 외 수급(외국인, 수요, 공급), 국가(웹툰-미국, 남미, 유럽, 라인-일본, 동남아시아)

- 네이버증권 종목별 뉴스 말고, SNS, 증권사 레포트, 공시 등 활용 필요함

데이터가 예측하기에 과연 충분할까?

-> 미중 플랫폼 공룡 FANG 등 과거-현재 추세를 분석해볼 필요

# 결론

## ■ 주가의 적정성 판단

- 단기적으로 고평가
- 소외업종(ex. 반도체) 이익개선 시 조정 가능성
- 확장성 감안 시 장기투자 매력을 보유함

참고) DB 금융투자

코로나19 이후 인터넷/이커머스 업종 Peer의  
밸류에이션이 우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별도 가치를 15% 확대 반영한 것이 목표주가  
상향의 주 이유임

도표 2. 네이버 밸류에이션

(단위: 억원 배 친수. %)

| 구분                              | 내용             | 비고  |
|---------------------------------|----------------|---|
| <b>네이버(밸도) 가치 1)</b>            | <b>454,883</b> |   |
| 20년 예상 순이익                      | 11,315         |   |
| 적용 PER                          | 40.2           | Alphabet, Amazon 등 주요 글로벌 인터넷/전자상거래 Peer 평균 |
| <b>LINE 지분 가치 2)</b>            | <b>69,721</b>  |   |
| LINE 시가총액                       | 135,881        | 공개매수 예정가 5,200엔 기준                          |
| 네이버 지분율                         | 73.3           |   |
| 할인율                             | 30             |   |
| <b>네이버 웨툰 가치 3)</b>             | <b>20,020</b>  |   |
| 20E 네이버 웨툰 매출액                  | 2,800          |   |
| 적용 멀티플                          | 7.2            | 15년 스포티파이 글로벌 확장성 부각 당시 편당 PSR에 10% 할증      |
| <b>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가치 4)</b>        | <b>25,900</b>  |   |
|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                     | 37,000         | DB 가치평가 상/하단의 중간값                           |
| 네이버 지분율                         | 70             |   |
| <b>적정 네이버 연결 시총 1)+2)+3)+4)</b> | <b>570,523</b> |   |
| 주식수                             | 164,263        |   |
| 적정 주가(원)                        | 347,322        |   |
| <b>목표주가(원)</b>                  | <b>360,000</b>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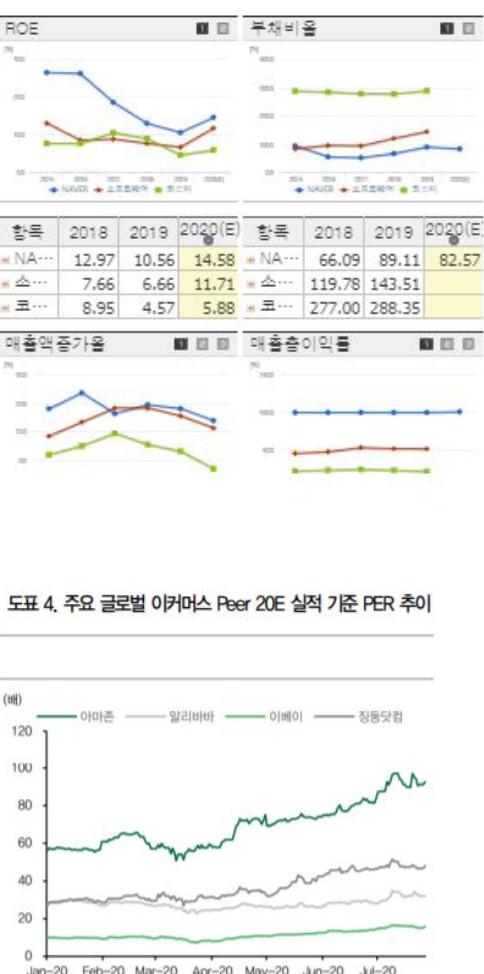
자료: DB 금융투자



도표 3. 주요 글로벌 인터넷 Peer 20E 실적 기준 PER 추이



자료: 블룸버그, DB금융투자



자료: 블룸버그, DB금융투자

## 결론

### ▪ 미래 주가 예측

- 1) 단기적으로는(2020 하반기)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음  
→ 주가는 언젠가 조정될 것임

Ex. 소외 업종 이익 개선(반도체), 시장 급락(코로나 악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기업도산, 개발도상국 파산 등)

- 2) 사업부문 실적 바탕으로 예전에 뿐혔던 씨앗이 잘 성장해서 수확하는 단계임  
→ 라인, Z홀딩스 경영 통합에 따른 변화, 네이버 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 본격화 단계  
→ 이미 많이 성장했지만, 장기적으로 봐도(+플랫폼 사업의 확장성) 투자 매력이 높음

### ▪ 미래 사업 전망

- 1) 국내 내수 시장의 한계 + 국내 모바일 플랫폼 - 카카오  
→ 해외 시장 모바일 플랫폼 라인 (일본,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임
- 2)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 3) 쇼핑-광고-금융 생태계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구성할지?
- 4) 동남아 시장 진출 어떻게 할지에 따라 전망 달라질 것임

감사합니다.